

성도의 벗 11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발전하는 비결은 복음이 참되다는 굳건한 간증을 회원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시는 신권 시대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주신 간증과 같은 간증입니다.”
(대관장님 말씀중에서)

성도의 벗

第3卷 第10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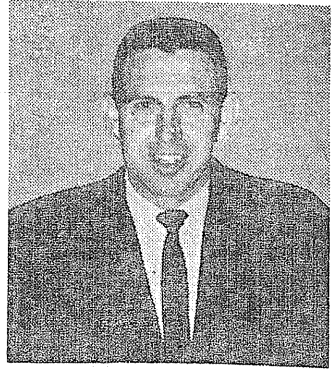
순서

1967년 11월호

권두언.....	배일문... 2
대관장 말씀	데이비드 오 맥케이... 6
성찬식은 거룩한 의식이다.....	레위스 제이 와레이스... 8
〈계보난〉 우리는 선조를 어떻게 찾나?	박재암...13
〈우리 지부의 역사〉	(청운지부 편).....17
〈선교사 초대〉	(반성하는 생활).....이구남...20
토막소식.....22
희망에 찬 데저렛 크립	이태문...25
〈역원 탐방〉.....	(금바울 형제 편).....28
물몬은 자란다32
성도의 벗 퀴즈.....34
바자.....35
〈연 제〉 엠마 레이 릭스 맥케이의 추억(2).....38
선교사 대회에 다녀와서.....	지영달...44
다른 사람은 알까요?	필자 익명...48
이달의 찬송	정대관...54
〈성경 동화〉 이야기로 엮은 구약성서(2)	김양자...56

표지 설명 : 가을꽃의 상징 국화
삼척지부 홍석진 형제 작

祭祀에 關하여



선교부장 배 일 문

돌아가신 분을 연례로 추모하는 제사 의식을 과연 말일성도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를 사악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제사는 악마에게 절하는 것이요 그밖의 헛된 것에 절하는 것과 같아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한다고 믿는 일반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동의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우리는 돌아가신 조상앞에서 조상의 이름을 일컬으며 그분들에게 절하고 음식을 바치는 의식으로서의 제사를 인정해야 하겠는가?

도대체 제사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내가 알기로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이 제사의 문제에 관해서 공식적인 정의를 내려주신 분이 아직 한분도 안 계십니다. 교회의 대관장이신 선지자께서도 제사에 관해서 언급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가 한국 특유의 의식이요, 회원, 선교사 할것 없이 제사에 관해서 자주 묻는고로 교회 회원에게 도움이 될 몇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물려받은 유산을 감사하게 느끼는 마음과 선조를 감사하게 느끼는 마음은 비단 우리 인간 사회의 온당한 율례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명하신 근본 자세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중 다섯 번째 항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여 이 땅에서 거할 날이 길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 20 : 12) 이러한 성스런 계명의 말씀은 이 시대에 와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서도 거듭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글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딤후 6:1)

이와같이 복음의 경전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이 옳다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순종의 도는 태초로부터 이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점에서 나는 늘 니파이를 마음으로 칭찬해 왔습니다. 그는 기록을 시작할 때에 자기의 생명과 재능을 주신 “홀륭하신 부모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내세워 극구 찬양했던 것입니다. (니일 1:1) 예수가 행한 지상에서의 최후의 행동도 부모의 존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요한 19:25~27)

효자책 어디를 봐도 아들이 어머니를 이토록 끔찍하게 생각한 기사는 없습니다.

제사를 조상에의 추모와 존경의 의식으로 갖는다고 하면 홀륭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말일성도들은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간에 우리의 부모가 안계시다면 우리도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조상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바울의 말씀에 보면,

“저들도 우리가 없으면 온전치 못하고 우리도 역시 죽은자가 없으면 온전치 못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성 128:15를 보라) 말일성도들이 신전에서 행하여 지는바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한 사업은 성스런 사업이며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이 땅에 전달된 권능을 소유한 성실한 말일성도들이 본분으로 알고 이행하여야 할 일입니다. (교성 110:13~16을 보라)

그러나 만일 제사를 조상숭배의 의식으로 갖는다면 이는 좋지 않습니다. 말일 성도들은 저들의 삶이 죽은 조상에 의하여 조정된다던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에게 기도하지도 않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위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성인”(잘못 성도라고도함)에게 기도하는 그런 교리를 믿지도 않으며 불타를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거짓 신상에 절하지 말며 하늘에 있는 어떠한 모양이나 형체에도 절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일 이 명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는 자손 삼사대에 이르도록 정죄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 20 : 5)

우리는 예수의 어머니 였던 마리아에게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상은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 가르침이요 오전된 교리인 것입니다.

고넬리오가 복음을 깨닫고 개심한 직후 그 기쁨이 극하여 베드로 발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를 예배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급히 명하여,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행 10 : 25~26) 한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높은 하나님의 사도의 겸양지덕이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리오의 절함을 비난한 것은 아니었으니 베드로 시절에만 하더라도 허리굽혀 절하는 일은 당연한 사회 예절이요, 구약시절이나 신약에 시절에 보더라도 주의 백성들간에는 서로 서로 절함이 극히 일반화된 통례였습니다. 예를들면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절했으며(사무엘상 28 : 14) 이삭은 야곱의 형제들에게 맏형에게 허리굽혀 절하여 그를 새로운 가장으로 맞으라고 일렀습니다. (창 27 : 29)

겸손한 예배의 자리나 경건한 기도의 식에서의 허리굽힘은 가상한 일이되 주의 무한하신 권세와 영광을 깨달아 오직 주께만 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이사야 45 : 22~24, 빌립보 2 : 9~11, 에베소 3 : 14, 로마 14 : 11을 보라).

자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사를 지내야 할까요? 나는 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자세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사를 조상에게 우리의 존경의 념을 전하는 의식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백성들이 조상의 무덤 주변에 모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뜻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이는 훌륭한 일이며 동시에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마시는 것은 훌륭한 풍속입니다. 만일 내가 비회원의 부모 형제를 모신 나이 어린 딸일성도라

면 기꺼히 저들과 함께 무덤에 가서 내가 조상을 존경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저들과 함께 절하고 또 함께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되 조상을 예배하지는 않을 것이며, 산신에게 기도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밖의 신령에게도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술을 마시지도 않으려니와 이를 죽은 조상에게 전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차차 내가 장성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갖게되면 나는 나의 가족에게 효도의 길을 차차 가르치고 물몬식의 제사를 가르치겠습니다. 물몬의 제사는 간략하고, 조용하고, 주를 감사하는 뜻이 풍만한 경건의 정신이 가득찬 의식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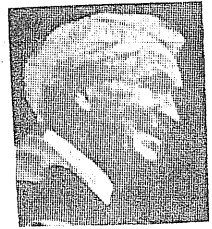
제사는 산자와 죽은 자의 구원에 나의 헌신과 노고를 바치는 방편이 되어야 하며 신권의 권세로 이시간과 영원을 위해서 전 가족을 함께, 하나님의 신전에서 인봉할 수 있는 크고 원대한 계보사업을 이루는 근본 방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제사가 새로운 정신력의 요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6 페이지의 계속)

너희를 절대로 야단치지 않는다”라고 하는것이 엄마의 교훈이었고 꾸지람을 듣는 경우 그것은 그들의 불복종의 댓가임을 아이들은 잘 배우게 되었다. 하루는 아들 아이가 방에 줄을 매느라고 상자를 겹쳐놓고 올라섰다가 상자가 어그러지면서 그는 방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울지 않았다. 올라 설 때는 걸상을 사용하라는 엄마의 명령을 스스로 어겼음을 잘 알

았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에게 사물에 대한 흥미를 불러 넣어 주기 위해서 레이는 집 뜰에 화초밭을 가꾸게 했다. 오랑캐랑, 펜시꽃씨를 심는 법을 참을 성있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심게 했고 매일 물을 주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네는 부드러운 샷이 자라고 꽃이 피었을 때 그 기쁨을 아이들과 더불어 즐겼다.

그대를 聖壇으로 인도한 사랑



결혼하기 위하여 성단을 찾아 오는 남녀를 중에는 결혼식이 구혼의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나 어른들은 모두 이 결혼의식이 영원한 구혼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게 마련인 가정 생활에서는 감사에 찬 부드러운 말과 예절바른 행동이 달콤했던 구혼기간 보다 더욱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치루고 매일 매일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가신 일들을 겪어가는 중에 “감사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혹은 “죄송하지만”이라는 말들이 당신을 성단앞에까지 이끌어온 그 사랑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결혼후에 행복을 키워주는 세가지 큰 이상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성실성입니다. 남편되는 당

신은 자기의 사랑스런 아내 외의 여하한 다른 여인에게 주의를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아내인 당신의 책임은 남편에게 향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가정을 이루는 무적의 팀이 되는 것입니다. 성단에서 맺은 위대한 성약에 늘 성실하십시오!

둘째 이상은 자제력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작은 일들은 끊임없이 생기게 마련이며 이에 따라 당신은 빨리, 거칠고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큰 자제력을 가지고 조심성있게 하는 딸씨보다 더 가정의 행복과 화평에 기여하는 덕성은 또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상했거나 당신에게 거슬리는 어떤 것을 볼 때에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심한 말을 삼가하십시오. 조금만 지나치고 나면 자신이 거칠은 말을 하지 않았고 충격적인 행동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게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되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곁과는 가정의 사랑과 평화입니다.

셋째 이상은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단순하고도 작은 예절이란 덕성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생 다음의, 가장 귀중한 은사는 자녀들입니다. 이 모든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근본적인 것은 존경받는 이름, 안정감 및 발전할 기회이며 이 모든 것의 중심지는 가정입니다. 자녀가 자제력으로부터 나오는 확신과 힘을 키우는 곳이 가정이며, 자녀가 타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곳도 가정입니다. 남자나 여자들이, 참 행복은 자기의 생활을 자연법과 사회 행동 규범에 어울리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의식하는 것은 훌륭한 아버지의 가정에서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중함을 보일 때 자녀들로 아버지와의 어머니에게 예절바르게 되고, 그러한 가정에는 우아한 요소가

깃들게 마련입니다.

성실성, 자제력, 예의!

우리 모두는, 다시 말해서 어린이나 젊은이나 부모들이나 또 아직 젊은 패기를 지닌, 모든 사람들은 가장 훌륭하고 선하며 가장 달콤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획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가장 선하고 행복한 생활은 우리의 동물적인 열정과 추세에 맡길 때에 찾아 오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가장 선하고 달콤한 생활은 영적으로 가치있는 것과, 미적인 것과, 삶의 아름다운 것들에 순응할 때에 진정 오는 것입니다. 가장 선하고 달콤한 생활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말씀에 조화된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간증이며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스스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뻐하라...
〈누가 22 : 12〉

성찬식은 거룩한 의식이다

레위스 · J · 와레이스

“그의 영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도록”

교회의 한 의식으로 성찬식을 제정하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찬 축복문에 분명히 설명되어 있다. 이것은 그의 교회 사람들이 즉 믿고 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니파이 3서 18 : 5 참조) “항상 그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교리와 성약 20 : 77)하는 통일된 방편

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그의 교회 사람들이 항상 “그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권하기를 바라셨던 바, 이 방편이란 아주 단순하며 그 단순성은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을 증거하고 있다.

만약 사람들이 진실로 구세주를 기억한다면 그들은 구세주의 이름을 스

스로 질머질 것이며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것을 행한다면 “그의 영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구세주로부터 비롯된 의식

이것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자주 다함께 모여(교리와 성약 20 : 75. 참조) 구세주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간단한 상징물을 준비하여 그것들을 겸손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쳐 그것을 드는 모든 사람의 영을 축복하시도록 간구할 것을 교회에 말씀하셨다.

니파이는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미대륙의 주민들을 방문하셨을 때 구세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보인 나의 몸을 기억하여 행할지니, 이는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할 것을 아버지께 증거함이라. 또한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할진대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니파이 3서 18 : 7)

이 말씀은 구세주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무리들에게 주어 먹게하신 후에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와 같이 포도즙을 축복하시고 무리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이를 행하라……”(니파이 3서 18 : 12)

구세주께서 행하시고 명하신 바 이

러한 일은 그가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최후의 만찬때에도 행하시고 명하신 바 있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태 26 : 26—28, 마가 14 : 24)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누가 22 : 19)

이 의식에서 중요한 것은 현대 계시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바 주님께서는 이 계시에서 상징물로 무엇을 사용하던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다. 중요한 것은 주의 영광만을 위해 전념하여 “기념하는 것”이다.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희가 성찬을 취할 때에 너희를 위하여 장사 지낸 나의 몸과 너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를 아버지 앞에 기념하여 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이를 행하면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마시거나 문제될 것이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27 : 2)

현대 계시는 또한 이 의식을 충실히 수행하므로써 얻어지는 가장 중요한 혜택을 지적하고 있고 동시에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자신을 세상의 더러움으로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이다.”(교리와 성약 59:9)

합당치 않게 취하지 말라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진실로 구세주를 기억하는가? 그보다도 우리는 항상 그를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이름을 받들 뜻을 갖고 있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실제로 증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성찬을 들기에 합당한가?

우리로 하여금 성찬을 합당치 않게 드는 것을 금하는 교훈이 성경에 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고린도전서 11:26, 30 니파이 3서 18:28-30 참조)

우리는 우리가 합당할 경우에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받들 뜻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에게 증거하며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므로서만 우리는 합당하게 될 수 있다.

분명히 주님의 선물은 있다. 그것은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받으자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받는 자가 없다면 주는 것은 헛된 것이다.

어떠한 영으로 우리는 성찬식에 참석하는가? 우리의 태도는? 그 모임에서 우리는 무엇을 취하는가? 그 모임에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는가? 그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우리는 어떠한 영을 가지고 참석하는가? 어떠한 영을 가지고 우리는 떠나는가? 우리는 실제로 주님이신 우리의 구세주를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받들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소의 습관으로 단순히 성스러운 의식에 참석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실제의 의미를 조금도 유의치 않고 참석하였는가?

성찬을 취함, 영적인 언약

데이비드 오·멕케이 대관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주님의 성찬을 드는 것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거룩한 의식중의 하나입니다……. 너무도 적은 수의 교회 회원이 이 단순하고, 비록 숭고한 의식이긴 하지만, 중요

하고 의의있는 이 의식에 참석합니다. 불행스럽게도 예배의 형식은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참된 영육의 인식이 없이 의형적인 형태로만 흔히 따릅니다.

“……성찬을 드는데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사람이 허용하는 위험한 형식이 있습니다……. 찰스 램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섹스피어가 이 방에 들어 온다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그를 만나보려 할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이 방에 오신다면 우리는 모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태도는 성찬식을 갖는 동안에 지속되어야 합니다. 비록 회중이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질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출석한 모든 사람은 각기 그리스도 생활의 미덕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왜냐 하면 성찬이란 하나님 아들을 기념하여 각인이 그것을 들도록 축복되고 성결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불리워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한 아들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제중에 한 사람으로 헤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 1서

3:2-3)

성찬 축복문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을 간구한다.

떡의 축복문의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고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심중히 생각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한 아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형제중에 하나로 헤아려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불리워지게” 되도록 재어 보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여기서 우리는 가장 높이 승영하셨고 영화로우시며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신 하늘 아버지에게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우리는 지상에 육체를 갖고 태어난 아버지의 독생자, 평화의 왕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우리의 만형,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에 의해서 세상이 지어졌으며 일찌기 지상에 살았던 사람중에 단 한분의 온전하신 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축복을 간구한다.

비올나니—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수중에 있는 축복을 간구함, 기도함, 간청함, 간절히 바람.

이 떡을 먹는 사람마다—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특수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서 성찬을 드는 모든 사람의 영육을

뜻한다. 우리가 성찬을 드는 시간은 복음 그 자체의 영적인 양식 보다도 사람의 “영육”(즉 영과 육)에 어떠한 먹이를 주고 있는 유일한 시간이요, 유일한 계제이다. 이것은 가장 뜻깊은 것이다.

당신 아들의 몸을—구세주께서 용감하고 고통스럽게 내어 놓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 가실 것을 알고 구세주께서도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였고 이 문제를 위하여 그 잔을 물러가게 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을 때 갓세 마네 동산에서 그의 아버지에게 기도 하였으며 마침내 그 고통을 감수하신 몸 인간의 육체.

기억하여 먹게 하소서—이러한 기억은 주께서 성찬 축복문의 내용을 말씀 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속에서 가장 의미있고 가장 높은 것이었음에 틀림 없었다. 왜냐 하면 떡을 축복하는 기도문에서 두 번 물을 축복하는 기도에서 두 번 구세주를 기억하도록 교훈을 주시고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 앞에 존귀하게 하시고—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우리 마음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증거하며 확인하고 장엄하게 이야기하며 성약하고 동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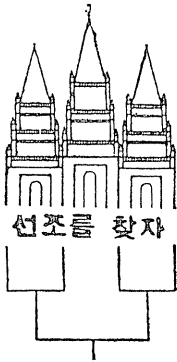
또 저희들이 기쁘게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어—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여기에 암시되고 있는 것과 뜻하고 있는 바를 다 따르

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목적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자 하고 있다는 언약과 성약을 더욱 더 하고 있다.

항상 그를 생각하여—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가 항상 그를 생각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가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며 일요일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며, 잠시 동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를 기억하며 그가 가르친 일을 행하고, 그가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기를 바라시는대로 하며 우리를 위한 그의 가르침과 의도와 목적에 일치되는 일을 행한다.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여기서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다. 계명을 모두 지키며 우리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가 명받고 지키도록 경고받은 계명을 지키며, 만약 이것을 지킨다면 전 기독교계는 개선될 것이며 우리가 구하는 최상의 평화를 누리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도록—여기에 성찬 의식의 최상의 목적이 있는바, 그 목적과 축복은 우리가 약속을 하고 성약을 지키는데서 얻어질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합당하다면 구세주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우리를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왕국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



우리는 선조를 어떻게 찾나?

박 재 암
(지방부 계보담당 평위원)

하나님께서 때가 찬 말세의 신권시대에 택한 선지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의 말씀 교리와 성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것은 구약성서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신 선조 구원에 대한 진리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의 귀절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겠으나 그 중에도 선조의 영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 없이는 우리 자신의 구원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은 우리 말일 성도들로 하여금 선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보사업에 정신을 기울리게 하는 데 관심을 크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몇 백년전 혹은 몇 천년전의 선조를 기록을 통해서나 구전을 통해서나 혹은 성령의 힘을 입어 찾는다는 태도는 용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찾아서 선조의 성명, 탄생일, 결혼일, 이혼일, 사망일 매장일(화장일) 기타 그들에 대해 중요하고 정확한 기록의 요구 사항을 죽은 자를 위해 대리 선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는 꼭 필요한 요건임으로 선조 발굴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여러 방법으로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설령 성신의 인도나 혹은 구전으로 정확히 선조 구원에 필요한 사항을 전해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전해 받은 사람의 생존 연령과 기억력의 제한을 생각해 보면 그것들도 반드시 가치적인 자료로 인정받기는 힘든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훌륭한 근거 가치는 정확한 기록에서 선조의 인물을 발견하는 것 외에는 최선의 방법이 없는 것으로 가치적인 것은 그 탐구 근원이 그런 기록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조를 찾기 위해서 족보 연구가나 계보 혹은 연대기 연구가들은 기록 근원에 관하여 다음의 중요한 네 가지 질문에 답변을 얻고저하는 것입니다.

1. 올바른 선조를 확인하는데 도울 수 있는 어떤 형식의 기록이라도 존재하고 있는가?
2. 그 현존하고 있는 기록이 어느 시대에서 어느 시대까지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가?

3. 누구의 족보기록이 그 실존물에 문서화되어 있었는가?

4. 현존하고 있는 기록물은 다른 계보 기록물에 대한 얼마만큼의 가치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정치풍토는 말할수 없는 외세의 침략과 내분의 당쟁사로 그 역사가 장식되어져 있었읍니다.

유독히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 족보를 보유하고 있는 백성으로서 그 족보의 계열이 성골, 진골 혹은 명문의 후손이나 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지위와 인간 가치가 우열로 평가되던 그런 가치적인 기록보유에 관심을 갖고 그 기록을 계승해 나가는 백성이었지만 이러한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그 가보적인 보물이 상실되거나 불태워져 없어졌으며, 더욱 당쟁사로 어느 양반의 지위가 무너지고 처형을 당하면 그 시족은 멸종하고 더불어 그들의 족보도 종지부를 찍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처참하고 피비린내나는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 백성들은 생명보다 그 족보의 기록을 중요시하고 그 기록을 사수하고 계승한 실적을 여러 가문의 전언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외부 침략이 임진왜란의 전후에서는 이와 같은 기록이 상실되기도 하고 몰수되기도 하고 전상을 입기도했지만 일제 합방 이후의 일본 군벌정치가 우리 조선민족

에 대한 정책이 여러 가지면으로 피압박적인 고충을 면치 못하게 했지만 그들의 대가족정책에 있어 족보 사업만은 대단히취급했으므로 현재 국립도서관에 수만권의 족보기록이 남아 있어서 우리 한국 민족은 최근에 하나님의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맞아 우리의 선조가 심혈을 기울여 전해주고 있는 기록을 얼마나 큰 축복가운데 바라 볼 수 있는가 생각할 때에 우리 민족은 의미 선택된 축복의 백성임을 감히 주장할 수 있겠읍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족보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백성들은 더욱 우리 말일 성도들은 선조를 구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적인 근원서류라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본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계도(Pedigree chart) 하나를 예를 들어 그것이 원하고 있는 바와 그것의 목적을 알아 보면 다음과 같습는다.

그것의 목적은 이 가계도를 기록하는 본인 자신이 어떤 선조의 혈육으로 결과되었느냐 하는 관심사로부터 이것의 도표를 따라 선조를 찾는 노력은 신전 사업을 위한 계보사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에서 원하고 있는 기입사항은 기록되어지는 특정인의 출생일, 출생장소, 결혼일, 사망일, 사망 장소 등으로 되어 있는데 당자의 족보를 참고로 하여 선조를 찾아올라가면 우리들이 이 요구사항에 만족

일자

1967. 10. 1

제출자의 성명

金 士 元

구동번지

西大門區 鷹岩洞 397 9188

시

서울특별시

이 가계도의 제1번은

가계도 번호제 _____ 번의

제 _____ 번 사람과 같다

金 在 鳳

출생일

1860. 10. 7

출생장소

慶南 東萊郡 檜張面 清江里

결혼일

1880. 10. 10

사망일

慶南 東萊郡 檜張面 清江里

사망장소

金 士 元

출생일

1908. 3. 5

출생장소

忠北 永同郡 深川 田湍里

결혼일

1934. 11. 16

사망일

사망장소

權 福 順

출생일

1862. 11. 5

출생장소

慶南 東萊郡 檜張面 新州里

사망일

1928. 4. 8

사망장소

慶南 東萊郡 檜張面 清江里

金 振 洪

출생일

1812. 3. 7

출생장소

慶南 東萊郡 檜張面 新州里

결혼일

1860. 7. 8

사망일

慶南 東萊郡 檜張面 新州里

사망장소

金 氏 (淸通)

출생일

1815. 10. 8

출생장소

慶南 東萊郡 檜張面 大羅里

사망일

1890. 6. 8

사망장소

慶南 東萊郡 檜張面 新州里

출생일

출생장소

결혼일

사망일

사망장소

여기에 지방부 제보위원
감사인 형제님의 가계도를
소개합니다.

을 주지 못하는 것은 외가쪽으로 그들의 이름과 출생일, 결혼일, 사망일, 매장일, 그 장소들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족보를 보면 대개 부친쪽의 혈통은 찾을 길이 없지 않으나 역시 그들의 결혼일 혹은 그들의 장소 등지는 찾기 힘든 것입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다 찾아 계통도를 살펴나아 가려면 친족 외가족 족보를 모두 연구하여야 찾아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족보가 제일 좋은 근원 자료가 되겠으나 그 외에도 많은 근원 자료가 필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호적 등본, 초본, 주민등록증서, 연구 조사서, 사주 혹은 결혼증서 가승보, 사망 진단서, 등기록과 선조의 묘비, 기념비 또는 가족을 위한 기록서나 가보로 전해지는 서적이거나 물품상의 기록들도 선조를 찾는 데 보조 기록의 근원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 필자 朴在巖의 족보기록을 소급 탐구해 본결과 新羅始祖王以來 30代 中

始祖 本貫 密城大君 諱彥忱을 거쳐 61代 後孫임을 직계 계열로는 찾았으나 본인을 낳아주신 어머니의 아버지 즉 외 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그들의 족보를 찾아 보기 전에는 가계도를 만족시키기에는 힘든 일이며 나아가서 본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고조 등등으로 찾아 올라갈 길이 있겠으나 그들의 부인쪽은 역사 그들의 족보를 찾아야만 찾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구해서 비로소 오늘의 자신은 어떻게 많은 가문의 골육을 통해서 결과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 선조를 오늘날 본인의 노력으로 구명할 수 있음은 얼마나 후손으로 뜻있는 신앙 생활인가를 새삼 자각해야 할 시기가 지금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님 다 같이 족보사업을 통하여 선조를 구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워 구원받도록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43 페이지의 계속)

졌노라고 약속했다. 그의 엄마는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열심히 용서를 빌었고 다시는 그 정원에 들어가는 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드디어 그의 엄마는,

“네가 토끼를 정말 원한다면 그 떡이를 바로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마는 그의 지시가 아이들의 마음을 상해주지 않거나 남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때 부드러워 지는 것이다.

엄마는 아들에게 워싱턴가에 있는 밀러씨 가게에 가서 저런 양파를 사오라고 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양파 한개를 먹어 보았다. 맛이 희안했다. 그 다음엔 자꾸 꺼내 먹었다. 그가 집에 갖고 돌아온 양은 반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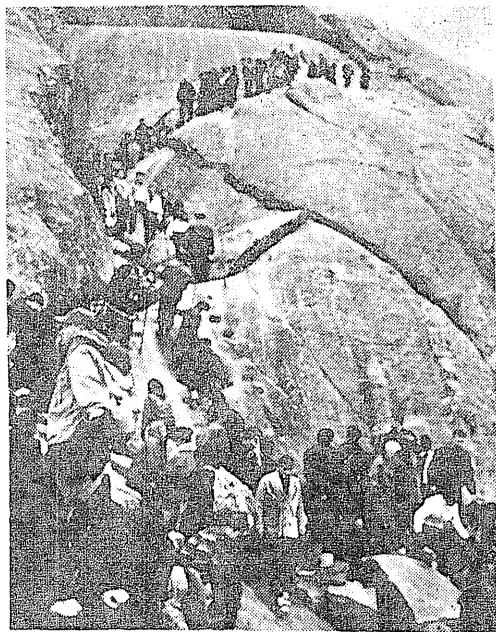
“음 너 이걸 무척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꾸지람이 아닌 엄마의 이 말을 듣고 아들은 해방감을 느낀 것이다.

“단일 너희가 엄마한테 복종하면

5페이지 하단으로

우리지부의 역사

— 청운지부편 —



1967년 3월 1일 백운대에서

편집자주 : 한국지방부예하 각 지부는 일년에 한번씩 지부대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벗에서는 지부대회의 모습과 함께 지부역사를 소개하기로 하고 그 첫번으로 청운지부를 소개합니다. 산 역사를 위해 각 지부의 성도의 벗 기자에게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부대회

지난 9월 24일 서울 청운지부는 1년동안 자란 지부의 면모를 다시 돌이켜보는 지부대회를 가졌다. 주일의 예배시간에 의해서 짜여진 지부대회는 차종환 지방부장의 관리로 9시 신권회로부터 시작되었다.

교회 연륜으로 가장 오랜 몇 분에 포함되는 정운형제가 지부장으로 있는 청운지부는 탄생된지 얼마되지 않았면서도 회원간의 협조로 서울의 다른 지부에 모범이 되어 왔었다.

신권회에서 지영달 지방부장 제1보좌의 말씀과 성찬식의 이영환 형제와 차종환 형제

의 말씀들은 다음 1년의 발전을 기약하는 회원들의 열의로 다져졌다.

청운 지부가 크기까지

아직도 찬 바람이 불던 1963년 2월 10일 중앙지부(현 삼척지부)에서 Bart L. Butler 선교사를 지부장으로 모시고 작은 무리들이 살림을 냈다.

이젠 다 자라서 살림을 난다고 다른 술의 밥을 먹기로 했으나 우선은 삼청지부가 예배를 끝낸, 오후 시간을 이용하여 모임을 가졌다. 살림은 낫다지만 같은 장소에서 시간만 다르고 보니 본래의 예배시간대로 예배보는 삼청지부와는 낫설지 않아서 청운지부의 회원들이지만 삼청지부의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였고 무슨 일로 늦은 삼청회원은 청운지부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있곤 했었다.

드디어 따뜻한 봄볕에 새색이 움트는 4월이 되자 청운동 7번지인 선교본부로 옮겨와 자리 잡게 되었으며 맨 위에 있는 건물(현재 번역실, 유년부 예배장소)에서 예배를 보게 되었다. 온돌방과 다다미방이어서 예배장소는 좀 비좁았지만,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어 첫 살림의 어색함을 덜어 주었다.

이 때의 선교부란 아직 백운장의 티를 벗지 못한 채여서 울긋불긋한 채색과 글씨들도 그대로 있었고, 백운장이 줄 알고 택시를 몰고 왔다가 어색하게 돌아가는 모습이란다. 총계를 따라 맨꼭대기 숲속에 있는 교회를 못찾고 되돌아가는 형제자매들의 일화도 있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모두들 예배하러 왔다가보다는 차라리 휴일을 이용하여 산장으로 놀이온 기분에 싸일 때도 많았다. 이렇게 맑은 공기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은 서울 근교에서는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꿀짜기엔 각종 나무가 무성하여 그늘을 주었고 각가지 산새들이 지저귀고 여름에는 매미의 노래, 맑은 개울물의 합창은 그대로 자연 교향악이었다. 봄이 되면 연록색 나뭇잎들의 아름다움, 개나리, 진달래, 벚꽃에 이어 밤, 돌배, 벗지,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경치들은 청운지부만의 아름다움일 것이다. 예사로 볼 수 있는 꿩과 다람쥐가 친근했고 가뭄에도 풍부한 수량과 깨끗하여 수도가 없어도 선교사들의 식수가 되어 주던 샘물이 흘렀으나 이젠 수도물로 대체되고 개울도 비가 와야만 줄줄 흐른다. 풍년이 되면 술이 적다고 “술적소쩍” 흉년이면 피로 죽을 썬어 먹는다고 “피죽핏죽” 운다는 소쩍새의 정경도록 구슬픈 가락도 청운동 7번지와 북악산이 가진 음성이다.

Bart L. Butler 지부장은 말이자 망내둥이로 누이들 사이에서 자라난 꿈꿈하고 재미있는 선교사로서 지부회원들을 잘 이끌어주었다. 이 때의 선교방법은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변화가를 돌아다니는 노방전도로 이채를 띄웠고 1963년 6월 98명에서 7월 말은 115명의 회원으로 100명선을 돌파했다.

64년 6월6일 버틀러 지부장의 선교사 임기만료로 환송 모임이 있었고 보좌로 수고하시던 멧쟁이총각 구 중식 형제께서 한국인 지부장으로 배턴을 이어받아 새로운 힘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66년 4월말엔 회원이 200명 선으로 올랐다. 그래도 아직 각모임

의 역원 조직은 선교사와 구도자들이 많이 많아주어야 했다.

청운지부의 자람이 또 있으니 작은 지부지만 선교사 배출엔 추종을 불허한다. 1964년 6월 14일막 군복을 벗어 아직 회원들과 서먹서먹하던 황 중섭 형제가 청운의 1번타자로 등장하여 임기중에 동부지부장을 역임했고 66년 6월 26일 “돌아오지 않는 귀환 선교사”로 기록 카드가 동부로 보내졌다. 1966년 1월 30일에 방문자반 교사로 수고하시던 김성문장로가 2번타자로 등장했지만 부산지부 소속으로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고 66년 5월 8일에 상향회회장으로 수고하시던 이정현 장로가 3번타자로 66년 8월 28일 서원장로가 4번타자로 부름받아서 내년 여름이 오면 4점획득은 무난하며 청운의 우승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며 상향회의 소프트볼에 있어서도 2년연승을 했으며 며칠 앞둔 금년대회에도 우승은 보장되어 있는 것 같다.

67년 1월 21일 노총각 주중식형제 결혼했다. 지부 음악반주자로 수고하시는 홍성욱자매와 청운 회원간의 첫결혼이었다.

66년 11월 6일 구 중식지부장으로부터 지부 열쇠를 정유헌형제가 이어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구지부장이 되신 구중식형제께서는 지방부 아론신권담당 평의원으로 수고하시게 되고 주일 학교담당 평의원으로 수고해 주시던 정대관형제께서는 신촌지역장으로 가시게 되니 지부에서는 허전함을 느

끼지 않을 수 없었다.

청운지부의 넷가지 명물로 떡국과 아이스크림을 들지 않을 수 없으니 따끈한 것이 필요한 때면 따끈한 떡국을 한대집씩 “홀홀쩍쩍”, 시원한 것을 찾게 될 때면 값싸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으로 재미있는 게임, 이야기, 민속무용과 더불어 이뤄지는 파티는 청운지부의 것처럼 되었다.

상호부조회 또한 김 리자, 송 정녀 자매로부터 현 장 인덕회장에 이르기까지 청운의 부조회가 제일이리라 생각한다. 기록에서부터 모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아기자기한 분위기로 일모임때면 둘러가며 저녁 식사도 지어다 먹으며 일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마다 부러워하게 된다. 엄마, 아빠가 적은 우리 지부는 청운의 뜻을 지닌 장래 엄마 아빠들이어서 상호부조회도 현재는 “장래 어머니 모임”이 되고 있다.

매주 토요일엔 오후 3시반부터 5시까지 상향회 주최의 운동모임을 김정웅운동교사 주관으로 유익한 시간을 갖는다.

현재 청운지부는 부족한 점이 많고 한창 자라는 마당에 있지만 9월 30일 임 영신 형제와 노 명인자매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246명의 회원을 가진 대가족으로 지부조직에 있어서도 모든 역원이 회원이고, 외국인 선교사는 복음전도만을 하게 되었다.

참고로 회원수를 분류하면

31페이지 하단으로

선교사 초대(5)

반성하는 생활



이구남 장로
(광주지부 선교사)



아무리 깨끗한 옷이라 할찌라도 오래 입으면 때가 묻고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는 동안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남을 속이는 조그마한 것들로 인해서 깨끗하기만 했던 우리의 마음에 때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생활 수준으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정화하기 위하여 주일날이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성찬식에선 우리가 행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생각하며 약속을 다시 이행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때문은 마음을 깨끗이 씻고 다시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한 길을 반성하는 생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생활해 오는데 가운데 수 없이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의식중 무의식중에 짓는 죄들은 실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보통 큰 죄(잇을래야 잇을 수 없는 죄)만이 죄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외에 조그마한 것들은 그냥 보통으로 넘겨 생각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유명한 성인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들 중 한 여인은 근심과 수심에 차 있었으며 다른 한 여인은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성인은 이들을 받아 들이기 전에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만약 그대들이 나에게 가르침을 받기 원한다면 너희 마음 속에서 향시 너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들을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수심에 찬 얼굴은 가진 첫째 여인은 아주 거북스럽게 지난 날에 행했던 죄를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듣고난 성인은 둘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은 똑바로 성인을 쳐다보며 나에게는 별로 이렇다 할만한 죄란 없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성인은 이 두 여인에게 말하기를 첫째 여인은 저쪽 담 밑에서 커다란 돌 하나를 가져오라 했고 둘째 여인에겐 큰 바구니를 하나 주며 다른 쪽 담 밑에서 자갈을 가득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들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인은 갖고 온 돌들을 다시 돌이 놓였던 자리에 놓고 돌아 오라고 했습니다. 첫째 여인은 쉽게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었으나 둘째 여인은 그 많은 자갈들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한참만에 무거운 자갈을 그냥 안고 돌아 왔습니다.

우리가 생활해 오는 가운데 우리는 수 없이 많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둘째 여자와 같이 그것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 주고 있는 것은 큰 죄는 물론 조그마한 죄가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음

니다. 그러면 이 조그마한 죄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나를 생각해봅시다. 첫째로 이것들은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만듭니다. 둘째로 이것들은 우리를 이중 인격자로 만들고 결과로 열등감에 싸이게 만듭니다. 셋째로 이것들은 우리들의 인격을 온통 썩이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이렇듯 무서운 죄를 극복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으며 정신적으로 자유를 얻는 길은 무엇보다도 하루 하루의 생활에 있어서 나를 반성하는 생활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원상태의 청결한 마음이 될 것이요, 따라서 교회 성도들과 단행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자리에 들기전에 오늘 내가 행했던 일들 즉 남과의 교제 관계, 생각하는 버릇, 친구간의 대화, 말하는 버릇 등 여러 가지를 반성해 보고 그것에 대해 슬픔을 갖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분명히 돌아다 보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에서 지혜가 생기게 되며 지혜있는 것에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고 그 곳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고 그것이 우리들을 저지할 때 그것은 오직 우리들 자신의 실책입니다. 이러한 것은 반성하는 생활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매들의 빨리 달리기)

말일성도의 최 고령자 침례

지난 9월 30일 서울 동부지부에서 있었던 서울지역 침례식에는 인천지역의 이 세화(李世和)형제가 침례를 받음으로 한국 말일성도중 최 고령자가 되셨다.

힐 장노에 의해서 침례되고, 장 병훈장로에 의해서 안수례를 받은 이 세화 형제는, 1890년 3월 7일(만77세) 세상에 나셨으며 침례 후 말일성도가 된 것을 축하하는 많은 사람에 싸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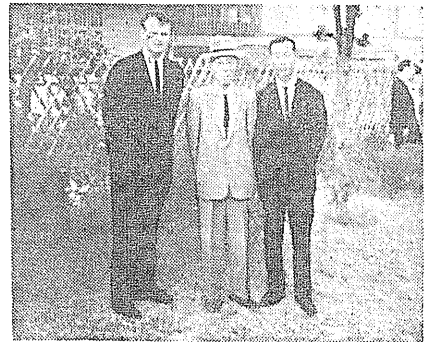
이 형제님은 세브란스 병원 서무부에 26년간, 세브란스 의약품 지배인을 지내시기도 했고 이후에는 인천성도 중고교에서 한문을 교수하시기도 했으며 고향인 서울을 두고 인천에서 생활해 오셨다 한다.

교회에 들어 온 동기를 묻는 기자 질문에 힐 장로와 장 병훈 장로의 방문이 동기가 되었으나 친손자인 이봉재 형제가 이미 다니고 있었으므로 곧 친숙하게 되었다고 말씀 하신다.

4개월만에 침례를 받게 된 이 형제님은 동경에서 神學을 공부할 때 이

미 침례를 받기는 했으나 옳은 敎會에서 침례를 다시 받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말씀하신다.

직장 때문에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가지 못함을 안타까워 하시며 기도하는 중에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얼굴 가득히 나타 내셨던 이 형제님의 의지를 쉽게 읽을 수 있었다.



좌로부터 힐 장로, 이세화 형제, 장병훈 장로

서울지역 합동 야유회 성황

한국 지방부 상향회 주최의 서울지역 합동 야유회가 지난 10월3일 서울의 6개 지부 및 지역의 참석리에 서울 근교인 동구릉에서 있었다.

서울 지역이 함께 야유회를 갖기로는 3년만인 이날의 모임은, 각지부와 지방부에서 준비한 활동으로 짜여져, 가을의 하늘에 여러 무늬를 수놓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300여명의 큰 식구들은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까지의 평안을 함께 만드든 사슬의 원으로 다짐하였다.

사랑의 아버지 방문

선교부 일반서기직을 담당하고 있는 존 그레고리 테일러 장로의 아버지가 임지인 월남으로 가던중 아들이 선교사로 있는 한국에 들렀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한국에 들렀던 테일러 형제는 십여년전 육군 소위로 대구에서 근무한 바 있다면서 구면인 한국의 발전에 깊이 감명 받았다고 전했다.

회원들과 이야기 하면서도 아들의 세심한 면까지 관찰을 게을리 하지 않던 그는 그때마다 대견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월남으로 떠나기에 앞서 와싱턴 유승 본부에서 근무했었다.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길 잘했다면서 아들을 격려하던 그는 아들의 소개로 서울의 몇 곳을 관광 했었다.

서울 동부지부에서 이야기 할 기회를 갖았었던 그는 복음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얘기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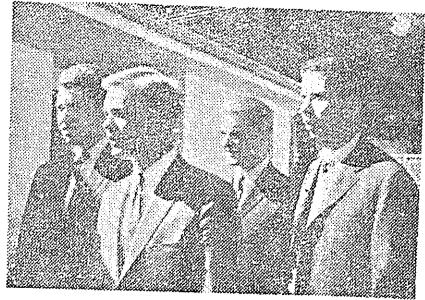
방문한 테일러 형제

전주지역 개척

한국에 주님의 복음이 상륙한지 십여성상.

그간 지부, 지역을 포함한 12개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던 우리들의 형제들은, 10월 17일 새로운 지역인 전주로 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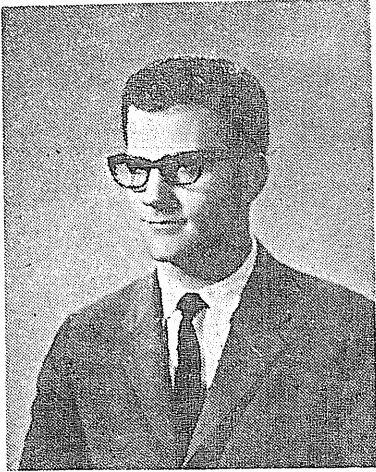
전주로 향한 선교사들은 칼슨, 스날, 각스, 닐슨 장로들로서 이들은



새로운 지역인 전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한결같이 감사하면서 맨 처음 할 일을 그 곳에 있는 다섯 분의 성도들을 방문하는 일이라고 했다. 전주는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이며 인구 20만의 교육도시로서 다른 교인들이 비교적 많은 곳으로 알려져 왔던 곳이다.

이들 선교사들과 함께 일익을 담당하게 된 전주의 흥 범식 형제는 한국의 어느 곳 보다도 훌륭한 지부를 만들어 놓겠다면서 방법을 제시해 보이기도 했다.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발전될 수 없음을 강조했던 전주 지역 선교사들의 주소는 남노송동 553의 4호이다.

서태봉 장로 귀국



그간 선교부의 일반서기직을 담당하고 있던 서 태봉 장노(알포드 이·스티븐스)가 지난 10월 23일 서북항 공편으로 귀국 했다.

입대할 경우 한국으로 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표현했던 그는, 사무를 인계 하면서도 종이 배와 노란 사쓰를 계속 붙여 이곳에 쏟았던 열의를 되 새겨 보는 듯 했다.

광주 지역 지부로 승격

그간 지역으로 선교사들에 의해 운영되어오던 광주지역은 11월 3일 지부로 승격하게 되었다.

지부로 승격하기 위해서 지부의 회원을 확보하고, 역원을 양성하고, 신앙을 쌓기 위해 여러 가지 일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광주지역의 지부장으로는 박 병규 형제가 부름을 받게 되었다.

이로서 광주지역은 1966년 8월 24일부터 만 14개월만에 지역에서 지부승격 되었다.

대구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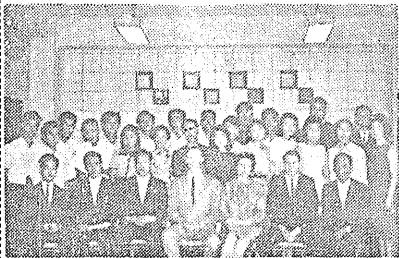
늘 단결된 지부로서 타 지부에게 부러움을 자아내게 하던 대구지부의 지부장단은 일신상의 문제로 그 일부가 개편 되었다.

즉 배 수열 지부장의 보좌로서 제 1보좌에 최 무선 형제 제 2보좌에 김 진호형제가 부름을 받게 되었으며 서기에는 배 성수 형제가 계속 일하게 되었다.

소프트 볼 시합

10월 14일(토요일) 오후 2시 부터 용두동의 서울 사대 운동장에서는 동부, 서부, 삼청, 세 지부의 참석리에 서울지역 소프트볼 시합을 가졌다. 시합 직전 대전표를 정한 추첨에서 서부는 부진승으로, 2년승의 청운지부는 동부 지부를 연장전 끝에 3:2로 눌러 내년 6월 종합체육대회에서 정상상을 가늠하게 되었다.

지방부 역원의 혼성 팀과 서부 지부와와의 친선 경기에서는 서부 지부가 지방부 팀을 10:9로 눌러 이겼다.



Korean Deseret Club

Members of the Deseret Club of Korea, the first Deseret Club in the Orient, are shown as they met in their third meeting. Advisers to the group are Prof. Lee Hong Jik, director of a museum at the Korean University and a famous Korean scholar and historian, and Jordan Tanner, cultural affairs officer associated with the U.S. embassy. "Our goal is to have a club at each of the major universities in Korea," said J. Spencer Palmer, president of the Korean Mission.

[임프루먼트 이라] 10월호에 소개된 한국 데저레트클럽

희망에 찬

데저레트 클럽

한국 데저레트클럽 회장

이 태 문

데저레트 클럽 회원들은 훌륭한 우의와 남여대학생간의 긴밀한 유대를 선양하고 지적인 활동을 고무시키고 우리들의 재능을 쌓으며 우리 한국의 종교적 생활을 지양하기 위하여 조직을 이루었고 매 월 제1, 제3 수요일 오후 6시부터 USIS 2층 강당에서 20여 대학에 적을 둔 대학생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

원래 이 모임은 금년 3월에 팔머 선교부장님택에서 우선 고려대학교에만 조직을 하기로 하여 선교부장, 하킨스, 천낙서, 이태문, 홍기승, 오세청등의 적은 수가 모여 회장 이태문, 부회장 홍기승, 서기 오세청 형제가 지명전출 되었고 그 후 지도 교수에 이홍직 교수님과 4명의 회원과 함께 즉시 고려대학에 등록을 필하게 되었으니 이때부터 당당 종교 단체로 면목을 갖추게 되었다. 4월에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실험실에서 창립총회를 가졌으나 모인 사람이 30명을 넘지 못했으나 선교부장님의 특별 말씀, 지도 교수의 뺏지증정, 영화감상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이 때 지방부장님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참석은 잇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후 회원들은 주 일회씩 교정에서 만났으나 강의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 동부지부에서 저녁 7시에 모여 물문경 공부와 토론으로 시작하였다. 그런데 클럽 지도자 하킨스 형제가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후임으로 미국 공보원 책임자 테너형제가 맡게 되었다. 테너형제는

많은 경험으로 자기의 계획을 설명하였고 결국 데저렛클럽은 서울의 각 학교에 그룹을 두기로 결정하므로써 모든 물론 대학생들은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때부터 모임 장소가 USIS로 되었고 참석 인원도 20명에서 40명까지 늘게 되었다. 7월 회장단 선거에서 회장 이태문(고대대학원) 부회장 유공선(연세대) 서기 고정숙(동덕여대)이 각각 선출되었고, 7월27일에는 BYU 농구팀 내한시 Welcome Cougars 란 푸태카드를 들고 공항까지 마중 나갔었다. 9월에 6개 부장을 선출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기획부장 정재희(서울공대), 섭외부장 고원용(서울공대), 교육부장 김정웅(서강대), 재정부장 윤치근(고려대), 체육부장 이상한(한양대), 문예부장 이숙자(이화여대). 9월20일에는 "한국 문화의 특성"이란 주제로 사학가 이용직 교수님의 금같은 귀한 말씀으로 특별 강연회를 가져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10월4일 모임에는 우리 회원들이 연구한 전공 분야를 발표하게 된 것은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이 클럽은 USIS 산하 40여대의 어느 클럽보다도 높은 품위와 강하게 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하였다.

동양에서는 첫째, 세계에서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조직을 본 데저렛클럽의 목적을 약속하면 (1)교회의 대학생들이 서로 연합하는 데 있다. (2)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신앙을 키우고 유지하는 데 있다. (3)훌륭한 사회적

계획을 마련하여 사회적, 정신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4)교회의 대학생들이 각종 활동에 참여할 특권을 누리며 허용되지 않은 학교 시설을 이용할 기회를 얻어 학원내에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있다.

그러나 상기한 원대한 목적과는 달리 아직도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은 클럽 활동을 자기의 현실적 이익과 직결시키려는 눈치가 보인다. 이상을 가진 젊은이가 현실에 급급해서는 대성할 수 없는 법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협력할 줄 모르고 이익만 찾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엔 무척 영리하고 자기만의 발전을 위하여 잘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 도그마에 빠져 고립을 면치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만다. 설령(그렇리 없지만) 한 개인의 힘이 강하다고 하자. 그러나 그 세력을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인 관계의 원만과 단결, 협력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나는 10여년의 학교 생활에서 우리 국민성의 허점을 느껴 보아 왔다. 그러나 우리 국민 아니 나의 허점을 내가 알기에 허에서 실을 찾자는 의견이다. 책임자는 왜 고집만 부리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가? 왜 평범한 회원으로는 협력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 회피하는가? 책임자에게 협력하는 데 무슨 자격지심이 든단말인가? 이미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를 가졌고 그들에게 순종할 줄 아는 신앙도 가졌으며 각 대학과 조국과 세계 무대에서 주름잡을 유능한 회원들을 가졌다.

이제 대내적으로는 회원들의 우의를 크게 하고 장학제도, 연구 기회와 시설 제공 등으로 성장하고 개척할 여지를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실력을 쌓고져 한다. 이제까지 물질 양면으로 도와주신 선교부장님과 이홍직교수, 테너형제 그리고 일선에서 지도와 교사로 크게 활약하여 주신 천낙서장모에게 크게 감사드리며 이 클럽의 훌륭한 발전으로 그 노고에 보답하고자 한다.

Deseret Club 광고 안내

경기도임

일시.....매월 제1 제3 수요일 오후 6시

장소.....USIS(미국공보원) 2층 강당

모든 모임에 교회 지도자와 대학 졸업 회원은 명예 회원으로 초청하며 물몬이 아닌 대학생도 참석을 환영한다.

12 페이지의 계속

이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임에 틀림없고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이리라. 우리가 어디를 가고 어디를 걸어간지 주님의 영과 구세주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도록 한다는 것은 훌륭한 생각이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악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며 우리가 따르도록 복음이 가져다주는 완전의 길로 잘 가게 될 것이다. 물에 대한 기도는 약간 다르다. 본질은 거의 동일하며 분석 결과도 매우 비슷할 것이다.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케함소서

—떡조각들을 축복하여 거룩하게함.

우리에게 있는 장엄한 의무

우리는 성찬식에 참석할 때마다 주님과 맺은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하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받들어 항상 그를 기억하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아버지에게 증거하며 그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끝까지 모든 것을 양심적으로 지킬 장엄한 의무를 갖는다.

역원을 찾아서 (6)

금바울 형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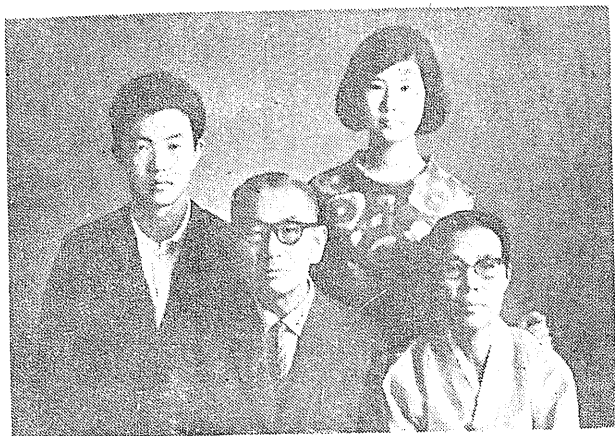


사진 : 좌로부터 증원, 금장로, 경미, 김자매

기자는 이 달의 탐방으로 한국 지방 부 건축 담당 평의원으로 계시는 부산 지부의 금 바울 장로님을 모시기로 하고 지난 9월 25일 저녁에 택으로 찾아 뵈었습니다.

기자 : 안녕하셨습니까? 좋은 말씀 듣고 싶어서 찾아 뵈었습니다.

금장로 :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 주셔서.....

기자 : 김 자매님께서는 많이 편찮으신 것 같으신데 편히 누어 계시지요?

김자매 : 편찮습니다.

(김 자매님은 눕지 않으시고 앉아 계시는 걸 보고 송구 함을 금치 못했

다.)

기자 : 금 장로님의 니카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금장로 : 지금 70입니다. (기자는 속으로 감탄사를 발했다. 평소엔 너무나 기력이 정정 하시니까.)

기자 : 보통 금 바울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 금 바울이라는 성함을 갖게 된 내력이

랄까 이유가 있습니까?

금장로 : 에 있지요. 김해 녹산이란 곳에 가면 보쾌산이라고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서 백일 기도를 할 때 얻은 이름입니다.

기자 : 어느 때 썸 입니까?

금장로 : 갑자년이니까 아마 13, 4년 전입니다.

기자 : 그 때 산에 가지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까?

금장로 : 뚜렷한 이유는 없고 다만 세상을 한 번 바로 바라보고 싶어서였죠.

기자 : 지금 택엔 가족이 몇 분 계십니까?

김자매 : 6남매인데 거의 결혼을 해

서 서울에 살고 있고 지금 막내 딸과 아들 하나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기자 : 김 종원 형제는 신권이 어떻게 됩니까?

종원 : 교사입니다.

기자 : 김 경미 자매님은 침례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경미 : 지금부터 7년 전에 송도 앞 바다에서 어머님과 종원이랑 같이 받았습니다.

기자 : 김 자매님께서 느끼신 것은?

김자매 :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참으로 좋았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추운 줄도 모르고……. 그리고 침례 준 선교사도 지금껏 잊혀지지 않고요.

기자 : 누가 주었습니까?

김자매, 경미 : (동시에) 스카운 장로와 그랜트 장로님.

기자 : 금 장로님은?

금장로 : 침례는 그러니까 11년 전 9월 1일 역시 송도 앞 바다에서 그 당시 음 장로한테 받았습니다.

기자 : 금 장로님은 지금까지 교회의 어떠한 직책을 맡아서 봉사하셨습니까.

금장로 : 침례를 받고 곧 주일학교 제1보좌, 그 다음 회장, 지부장 보좌 그리고 지부장, 그 다음에 지방부가 나누져 있을 때 남 지방부 지방부장, 지금은 건축 담당 평의원이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건축에 대해선 많이 알지 못합니다.

기자 : 결혼의 말씀입니다. 교회 나

오시게 되므로써 생기는 어려움 같은 것은 없으셨습니까?

금장로 : ..어려운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엔 커피를 대단히 좋아해서 하루 열잔 정도를 마셔도 시원찮게 아주 즐겼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커피를 안 마신다고 하니깐 어쩔지 멀리해졌었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커피안 마시는 줄 모르고 묻지도 않고 커피를 청했을 때 좀 거부했읍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 문제가 아니지요?

기자 : 교회 생활 중에서 가장 기뻐던 때는?

금장로 : 기쁜 일은 전부가 기쁜 일이 아닙니까? 허허허.

기자 : 가족들의 특기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금장로 : 우리 집엔 자랑할 만한 특기가 없고, 매일 앓는 것이 특기라고 할까요?

(일동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 참 그리고 나중에 가실 때 집 사람을 위해 안수해 주시고 가십시오.

기자 : 금 장로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하시지만 젊은 이 못지 않게 건강하시고 기력이 많으신데 건강에 대한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금장로 : 비결이라고 별다른게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좀 덜 늙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육신의 고통은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는데 정신의 고통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자 :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종교 교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금장로 : 뚜렷이 종교 교육을 하는 것은 없고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걸로 압니다.

기자 : 따님이 아버지께 대하여 몇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자랑이라든지 또 아버지께 대한 불평같은 것도 좋구요.

경미 : 제가 보는 관점으로서는 무엇보다 비굴하지 않고 양심적이라는 것 이것은 제가 늘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이라는 것은 사무실에서 가정에 돌아 오셔서 식구들과 같이 즐기고 하는 시간이 별로 없으시고 연세가 많으신 탓인지 곧 자리를 펴고 누우십니다.

금장로 : (딸을 향하여 자애스런 얼굴로) 그건 네 불평이 아니라 어머니 불평이 아닌가!

(여기서 또 한바탕 모두 웃었다)

기자 : 김 자매님은 이 기회에 금장로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자매 : 별 다르게 이야기 할 것은 없습니다. 음식은 육식보다 주로 채식을 좋아하시고 다르게 뚜렷한 취미도 없구요. 그러나 신앙이야 말할 수 없이 강하지요. 아마 신앙으로 해서 덜 늙어 보이는 것 같아요.

기자 : 종원 형제는 아버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종원 : 교육 방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아버지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마음대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간섭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아버지께 돌리지 않고 제 자신이 책임을 진단 말입니다.

기자 : 금 장로님이 집안 식구들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금장로 : 집 식구들을 일일이 세심하게 돌보지 않으니까 불평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 남에게 잘못된 생각은 별로 없어도 가족들에게 잘못했다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기자 : 금 장로님의 경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장로 : 경력이란 별로 없습니다. 남이 모두 알기를 절 사법서산출 아는데 실상은 전 사법서사 보다도 등산에 열중하고 또 취미를 갖습니다. 또 절 등산간 줄 아는 사람은 있지만 제가 진리 탐구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죠.

기자 :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가정의 밤 같은 것을 열어 보셨습니까?

금장로 : 우린 매일 가정의 밤을 갖습니다.

기자 :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김자매 : 찬송가는 다 좋습니다.

기자 : 그 중에서도?

경미 : 107장 오늘 네집 떠나 올 때

기자 : 지난 번에 성도의 벗 편집실

에서 금 장로님께 감사장을 드린 줄로 알고 있는데 그 20권을 다 누구한테 보내십니까?

금장로 : 대개 친구들한테 보내는데 관청에 있는 이들을 주면 고맙다고 받으면서도 뒷공론이않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 보담 점심이나 한번 사주지 그러느냐고 하고 또 대개 공무원이 부패해서 성도의 벗이 자기들의 생리에 맞지 않으니 싫어한다는 간접적인 이야기 들고는 요즘은 그런 친구들한테 보내지 않지요. 진주를 돼지에게 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나이 많은 친구들한테 보내면 대단히 좋아해요. 그 후에 만나면 나보담 우리집에서 더 좋아하며 또 기다린다고 하면서 꼭 고맙게 생각해요.

자기 : 지금도 계속하시고 계십니까?

금장로 : 예.

기자 : 아마 제일 좋은 선물이 책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특히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의 벗 같은 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장로 : 우리 교리를 전하는덴 그 이상 없지요.

자기 : 오늘 늦게까지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해 주신 다과를 서로 나누고 난 뒤 김 채순 자매님의 건강을 위한 올리브 기름을 금 장로님이 발려주시고 김 용일 지부장님이 병 고침에 대한 안수 축복을 한 후 가족들의 정에 겨운 환송을 받으며 대문을 나서는 기자의 마음 속엔 김 자매님의 건강과 또한 가정에 언제나 화평과 안식이 있기를 바랬다.)

이 광 흥 기

(19페이지의 계속)

남여	회원		21 세 이 상	21 세 이 하	계
	신 권	별			
형 제	장 노		12		12
	제 사		3	3	6
	집 사		11	9	20
	교 사		14	15	29
	회 원				55
	소 계				122
자 매					124
계	※ 축복받은 유아 1명 제외				246

시온은 자란다!!

편집자주 : 이해에 탄생된 어린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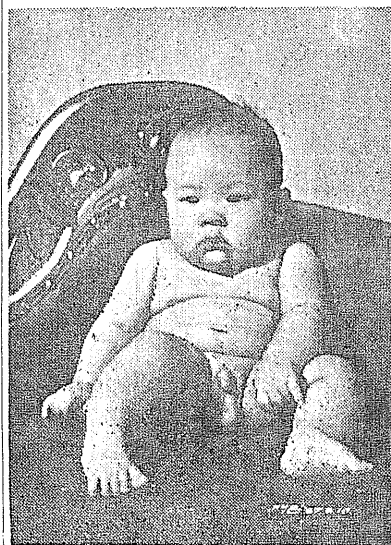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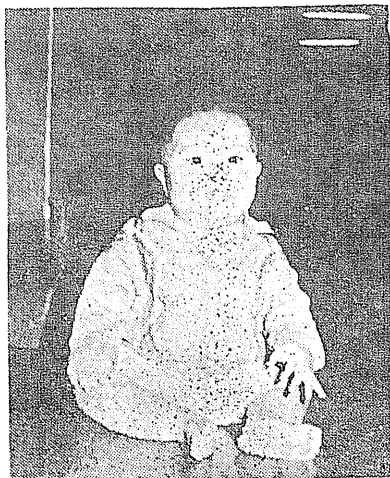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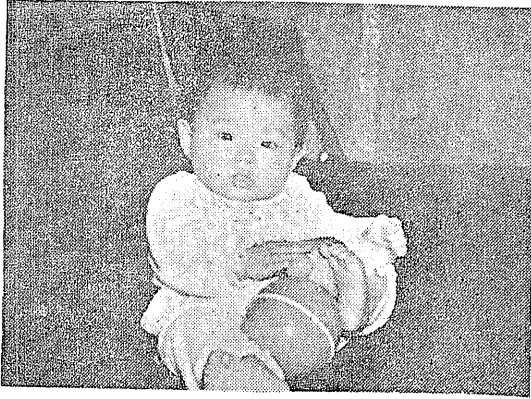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천사를 시켜 여러번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어 지혜있는 자와 학식있는 자를 당황하게 하시느니라」

—물몬경 앨마서 32장 2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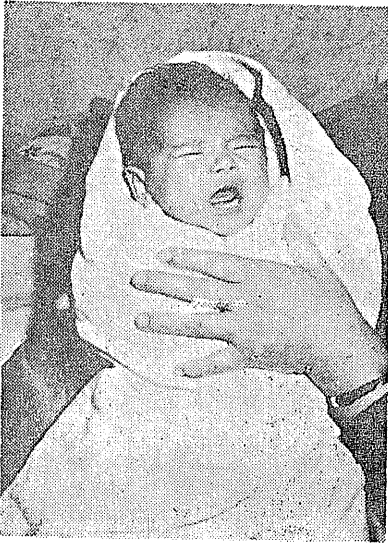
도 길희 형제의 따님
도 원정 1967년 3월 8일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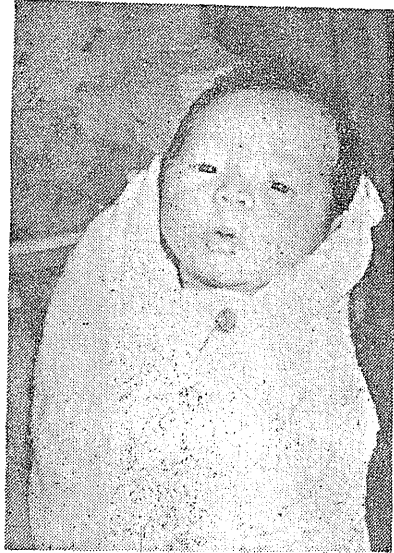
김 석모 형제의 아드님
김 우식 1967년 5월 3일생



한 인상 형제의
따님
한 보 희
1967년 3월 11
일생



김종균 형제의 따님
김 선 형
1967년 8월 29일생



김 상호 형제의 아드님
김 봉 준
1967년 9월 8일생

제 6 회

성도의 벗 퀴즈

【문제】

다음 빈칸에 맞는 수를 넣으시오.

1. 우리는 _____ 계조의 신앙 계조를 갖고 있다.
2.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_____ 가지의 복을 설파 하셨다.
3.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_____ 번 말씀 하셨다.
4.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_____ 제 날에 부활 하셨다.
4. 누구든지 자기 수입의 _____ 을 십일조로 낸다.

【응모요령】

1. 성도의 벗 몇회분 임과 주소, 소속지부명을 쓸 것.
2. 해답은 11월 30일 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3. 정답자가 5명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4. 5회 정답자 5명에게는 6개월의 성도의 벗을 우송 함.

제 5 회

정답 및 정답자

다음을 답 하시오.

1. “아담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을 얻으리라”는 구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 교리와 성약 19 장 16 절~18 절

2. 휴비 부라운이란 분은 누구이며 한국엔 언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답.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부 대관장 이시며 1967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계시면서 교회지도자들과 의견을 나누시고 극기 계양대 낙성식을 가졌었다.

3.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함이었고 인간이 존재함은 즐거움을 얻기 위함이라”는 구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 니파이 이서 2 장 25 절

【정답자】

동부지부 고 천석(4) (이상 1명)
이제까지의 정답자 및 정답회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답자 김 문순 (당첨)
강 춘봉 (")
방 춘성 (3)
이 호희 (2)
이 봉재 (1)
양 해운 (1)
차 미선 (1)
정 단 (1)
김 문자 (1)



성황리에 개최된 바자회

올해로 3회째가 된 상호부조회 주회의 바자회가 10월7일(토요일) 한국 선교본부 대강당에서 있었다.

세계 각국의 상호부조회의 연례 행사로 되어있는 이 바자회는 병자와 어려운 사람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 주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준비 기간으로 되어 있는 일년동안 이루어 질 일들을 생각하며 협조하는 정신은 가정과 신앙을 함께 쌓을 수 있는 방법으로 권장되어 왔었다.

탄생된지 얼마되지 않은 내전지역을 제외한 선교부 산하 12개 지부 및 지역과 지방부가 참가한 올해의 바자회는 하오 1시 개점과 함께 매진 혹은 예약되는 즐거운 비명속에 판매되었다. 복음안에서 하나씩 다듬어졌던 물건들을 둘러보던 어느 자매의 어머니는 12점의 손수감을 작만했음을 보여주며 "우리 딸이 이렇게 활동적인 교회에 다니는지 몰랐다"면서 우리교회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무대를 좌우해서 같은 크기로 나뉜 상점을 서로 특색있게 장식한 각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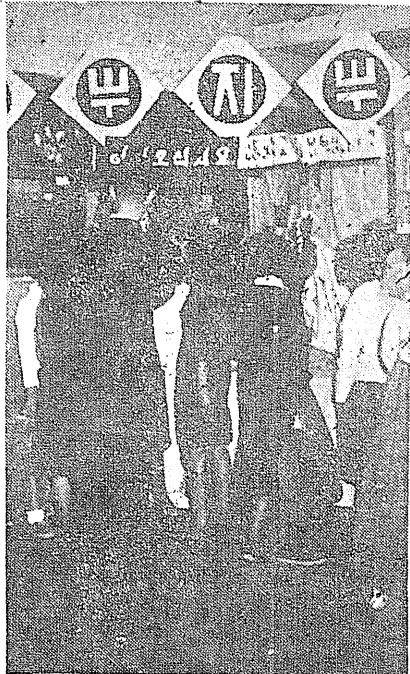
부 및 지역은, 무대 중앙에 자리잡은 꽃꽂이 전시와 미용 쏘, 무대 맞은편에 자리잡은 임시 다방, 떡집, 과일 가게들로 나뉘어서 강당안은 규모있게 경리된 시장을 이루었다. 특히 용산지역의 외국인 자매들의 특별출연은 복음안에서 함께 모인 즐거움을 더 해 주었다.

올해의 바자회를 준비한 지방부 상호부조회의 회장단과 상호부조회의 고문 팔마자매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옛말처럼 서로 자기 책임을 다하고 봉사하는 열의속에서 오늘을 갖을 수 있었다면서, 결혼한 자매가 모임에 참석치 못할 경우 집에서 출품 준비에 협조하는 열의는 큰 의욕을 불러 이르켜 준다고 말했다. 올해의 특징을 묻는 기자에게 판매를 위한 과잉 열의는 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판매 이익금의 100%를 헌납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각 지부의 특징있는 오락과 음식 준비로 규모있게 짜여진 프로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을 오후 8시 폐회 때까지 자리를 뜰 수 없게 만들었다.



上 : 영등포지역 상점의 진열된 상품



左下 : 만원사례의 동부지부 상점

右下 : 인천지역 선교사들의
죽보 전지 및 판매.





↑ 위건스 장로의 헤어·쇼 모델엔 우 양자 자매

↓ 언터리 화가들의 제작광경





남편인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을
위한 맥케이 자매의 피아노 연주

엠마 레이 리스 맥케이의 추억

제 2 부(10 월호의 계속)

결혼, 자녀

1897년 유월, 학교를 졸업하면서 반장이었던 데이비드·오 맥케이는 학생 대표로 답사를 읽게 되었는데 그가 예행 연습 때 답사 읽는 것을 듣고 레이는 한 마디 한 마디에서 가슴 설렘을 전해 받았다. 그리고는 앞으로 다시 그를 영 보지 못하게 될 것 같은 착각에 마음 아파하기도 했다. 지넷트와 앤 맥케이가 데이비드 오 맥케이의 선교사 환송식을 위해 레이를 헌스빌로 초대했을 때 레이는 뿔뿔이 기뻐하며 쾌히 초청을 수락했다. 그 날 밤 순서가 모두 끝난 뒤 맥케이와 레이는 서로 손을 잡고 교회에서 맥케이 집에까지 걸었고 맥케이가 떠나 있는 동안 서로 서신을 나누기로 약속했다.

그 해 팔월은 병이 나신 어머니를 염려하고 돌보아야 하는 펙이나 분주한 달이었다. 1897년 8월 29일 드디어 레이의 가슴을 파헤치는 듯한 아픔이 왔다. 그의 다정한 그 인자하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다. 그 후 어느 해 레이가 유타주의 어머니로 선발되었을 때 그네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네의 어머니께 최상의 찬사를 바쳤다.

“저의 어머니는 선한 어머니가 자녀야 할 온갖 보배로움을 최상으로 갖추신 분이로서 저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는 용기와 명랑함이 있었고, 인내, 사랑, 친절, 이해 그리고 가정을 가꾸고 이루는 재질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 레이는 대학 수업에 전념했고 분주하게 일하는 중에 어머니의 별세가 안겨준 슬픔의 터를 매우려 했다. 1898년은 레이가 대학을 끝내는 해였다. 그는 학사 자격과 함께 대학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으며 그 해의 졸업생 여섯 중 하나의 자리를 차지했다.

대학을 끝낸 뒤 그네는 신시내티로 가서 그곳 음악대학에 적을 두고 피아노를 공부했다. 차츰 서부에 있는 친구에 대한 향수가 깊어지자 그네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유타주 옥든시에 있는 메디슨 국민학교의 교사직을 수락했다.

첫 수업을 하던 날 교장이 교실까지 쫓아와 그네를 소개한 다음 교실 오른 편에 앉은 남자아이를 이르켜 세웠다.

“릭스양, 저기 저 아이가 선생을



12세 때의 엠마 레이 리스

괴롭힐거요. 저 아이는 이 반에 들어온 이해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왔오. 만일 저 아이가 또 다시 선생을 괴롭히거든 곧장 내게로 보내 주시오. 내가 버릇을 고치도록 하겠오”

그 지적당한 아이는 제 자리에 앉자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붉혔고 레이는 이를 마음 아프게 생각했다. 교장이 교실을 나간 뒤, 다른 아이들이 자기 필기에 열중한 틈을 타서 단을 내려

가 그 소년의 손에 종이 쪽지를 전해 주었다. 그 쪽지에 아래와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는 교장선생님이 꼭 너를 지적해서 네가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네가 착한 아이라는 것을 알며 올해에 최선을 다하리라고 믿는다.”

그 후 그 아이의 어머니는 레이를 찾아와 그 아이가 쪽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읽어보라고 한 다음,

“읽고 꼭 제게 돌려주세요. 언제든지 가슴이 지니겠습니다.”라고 말하더라는 얘기를 전해 주었다.

그 아이는 그 해에 늘 협동적인 태도로 일했고 차차 자라 옥든시의 훌륭한 시민으로 장성했다.

데이비드 오는 그가 선교사를 끝내기 직전 옥든시의 워버스테이크 아카데미의 교사로 일해 달라는 청탁을 편지로 받고 기꺼히 승락했다. 그리하여 선교사 환송회때로부터 시작하여 서신으로 부르익은 레이와의 관계는 데이비드 오가 1899년 8월 스코트랜드에서 돌아온 후로도 1년반여나 계속 되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옥든시 레스터 공원에서 있는 어느 우아한 우산처럼 늘어진 나무밑에서 데이비드 오는 레이에게 구혼했다. 그네는 감동하면서도,

“정말 당신은 저를 원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에, 분명히 원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면서 그의 애인은 미소를 지었다.

이들은 바로 약혼했다. 그리고 약한달이 지나 1901년 1월 2일 데이비드 오는 말마차에 레이를 태워 쏘트 레이 크신전까지 안내했고 거기서 요한 헨리 스미스 장로의 주관으로 결혼하여 영원한 동반자가 된 것이다.

“수은주가 영하를 오르 내리는 추운 날씨였으나 우리의 마음은 따사로웠고 전혀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라고 레이는 그 때를 회상한다. 의식을 끝내고 둘은 말을 몰아 레이의 사촌인 벨 화이트의 집으로 가 그 날 밤에 있을 축하연의 마지막 준비를 끝냈다.

다음날 행복한 이들 부부는 구식 뱀버거 전기 기차로 옥든시에 가서 데이비드 오의 아주머니인 메리를 방문했고 바로 꽃술로 장식된 승용차에 올라 일로 현스빌로 가서 거기서 결혼생활의 막을 열었다. 이 때로부터 이들은 서로의 문제와 필요에 마음을 두고 살았으며 처음부터 레이는 결혼의 성공이 쟁취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을 알았고 그 노력이 처음 여섯 달 동안이라던지 혹은 5년이나 십년동안만 시도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둘이 함께 하는 온갖 세월을 두고 시도되어야 함을 알았다.

이들이 결혼하기 일년 전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위버 스테이크의 주일학교 평의원으로 발탁되었다가 곧 회장인 토마스 비 이반스 형제의 제이 보좌가 되었다. 이러한 직책에 임명된

후로도 그는 위버 아카데미의 교사직을 착실히 이행했으며 처음으로 옥든시 문로가 2247에 첫 자택을 이루기에 이르렀다. 1902년 드디어 그는 위버학교장에 임명되었다.

이처럼 남편이 일면 아카데미의 지도자로서 또 일면으로는 교회 보조기구의 역원으로 임무수행에 분주한 즈음 레이는 자녀를 낳아 그들에게 사랑스런 분위기를 불어 넣어 주느라고 애쓰는 일면 한편으로는 분주한 남편의 성실한 동반자로서의 모두를 하고자 노력했다. 결혼 초기 젊은 남편이 임명을 받아 이 와드 저 와드를 방문해야 할 때 레이는 남편을 격려하고자 어린 아이와 함께 흔들리는 말마차에 몸을 싣고 여러 마일을 남편과 함께 여행했다.

“남편은 내가 늘 그 곁에 함께 해주기를 원했고 어느 때라도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요구에의 해결을 위와 같이 술회했다.

“내가 청중들 틈에서 나의 아내를 발견할 때 나의 가슴은 위로 받곤 했습니다.” 이것이 남편의 되풀이 될 줄 거운 토로였다.

〈그녀는 어떻게 자녀를 길렀는가?〉

1906년 4월 연차 총회에서 회중에 앉아 데이비드 오가 십이사도의 일원이 된다는 광고를 처음으로 듣고 레이는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이 그의 영적인 가치와 지도 능력등을

인정받고 받을만한 영예를 받는 그 자리에서 레이 역시 커다란 기쁨을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는 마음으로 분명히 남편이 임무수행을 위해서 자기와 어린 아이들을 더 자주 그리고 더 오랫동안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그 후로 정말 그는 스테이크 대회를, 그리고 다른 임무를 위해서 이 삼주씩 집을 떠나 말이 끄는 이륜 마차로 여행해야 했다. 그럼에도 레이는 가정 주부로서 그리고 엄마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자녀에게 키도를 가르쳤고 남을 도우고, 정직하고 남들에게 사려깊고 또 교회 임무에 충실하라고 가르쳤다. 어떻게 그녀가 자녀를 다스렸느냐는 질문을 다른 어머니들이 종종하는데 여기 그녀의 삶에 비친 방안이 있다.

늘어나는 식구로 인해서 더 큰 집이 요구되었고 마침내 676가에 큰 집이 세워졌다. 여기서 이들은 1904에서부터 1920까지 살았다. 아이들은 집안 일을 함께 거들어야 한다는 훈련을 모두 받았다. 이들의 첫 아들의 첫 임무가 엄마를 도와 엄마가 세탁하는 날 접시를 닦는 일이었다고 아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녀는 세탁을 시작한다. 밤새도록 비눗물에 담가두었던 옷들을 그녀가 어린 소녀였을 때 배운대로 석탄 보이러에 붙은 빨래 그릇에 옮겨 삶는 것이다. 이 때에 그녀는 이미 글자와 철이 다 벗어진 빗자루 대로 그릇을 옮기고 아들은 세탁통을 이리 저리 휘

젓는다. 세탁기에 붙이는 모타가 발명된 날은, 아들에게 있어 세탁통을 휘젓는 고통을 제거해 준 고마운 날이었다. 매일 아침 부엌에 불을 지피고 난로를 피우는 일, 젖소의 젖을 짜고 또 돌보는 이 모든 일이 다 아들의 책임이었다. 때로 아이들은 엄마를 도와 끓는 물에 튀긴 닭의 털을 뽑기도 했다. 이들은 수시로 찬물에 손을 담구어 뜨거움을 식혔다. 이들은 말끔하게 털뽑힌 닭을 불에 그슬러 잔털을 제거한 뒤 황갈색이 되도록 기름에 튀겨 주일날 먹던가 밤 정찬에 먹었다.

때로 자녀들은 차갑게 냉각된 밀크 단지에 결정된 빠다를 거두는 일도 도왔다.

그녀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식료용상에서 늘 물건을 샀다. 매일 기록을 하고 지불은 매월 초에 했다. 하루는 기록부를 뒤지다가 “캔디”라고 적힌 몇몇 청구서를 발견했다. 아이들을 모아 놓고 몇 마디 묻고 나서 바로 일을 저지렀음직한 놈을 알아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노하거나 불기를 치지않고 그의 손을 단단히 움켜잡고 곧장 그 상점으로 갔다. 거기서 그녀는 그 아이에게 부모의 허가도 없이 장부에 캔디값을 달아 놓았음을 사과하게 했다. 이러한 처사는 아이가 정직함을 배우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데 있어 매보다도 몇 배의 효과를 걸우게 했다. 그로부터 그녀

는 그 아이에게 가용을 벌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 뒷뜰에 있는 흰색 레구홍을 먹이고 알을 묶으는 일이었다. 엄마가 필요한 량의 알을 가져가고나면 그 아이는 씻어서 모은 나머지를 한데 합쳐 꾸러미를 만든 후 앞가게에 내다가 팔아 용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네의 바로 옆으로 빈티가 있었다. 하루는 아이 하나가 뛰쳐나간 닭을 쫓다가 도망해 온 토끼를 발견했다. 순간 이 아이는 닭을 팽개쳐 두고 토끼를 쫓아가 잡아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두꺼운 상자를 꺼내어 토끼를 가두려 했다. 이 때 그네는 아들에게 그 토끼가 그의 토끼가 아님을 일러 주었다. 그 토끼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으니까.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데요. 뭘, 난 이거 갖겠어요.” 아들의 소리는 차라리 하소였다.

“그럼 아빠가 오시거든 아빠게 여쭙기로 하자.”고 그네는 대답했다.

사실상 이들 부부는 정직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다. 토끼는 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이는 그 탐스런 털의 보물을 그대로 들고 돌아왔다.

“너 왜 그걸 그냥 갖고 돌아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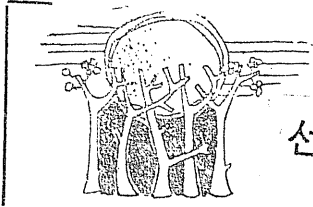
“뜰에다 놓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게로 달려오는 걸요” 그는 머뭇거렸다. 엄마는 조용히 그와 함께 들로 나가 그의 옆에 서서 토끼가 멀리 뛰어 달아나는 걸 바라보았다. 그네는 그 때 아들이 맛보는 슬픔을 똑

같이 느끼고 있었던 거다. 일 주 후에 토끼 한쌍을 사서 그놈에게 넘겨주어 기르고 돌보게 했다.

이 아들은 매일 펍 멀리 걸어나가 수가 불어나는 토끼를 먹일 크로바나 알팔파를 구해야 했다. 길 건너 편에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 미쓰 씨만이 살았는데 그 뒷뜰에 루산을 많이 길렀다. 아들이 하루는 역시 예대로 토끼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루산밭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 뜻밖의 행운을 크게 기뻐했다. 그는 울타리 밑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 급히 연한 잎새를 따 자루에 넣어가지고는 급히 구멍을 빠져나와 자루를 어깨에 둘러 메고 휘파람을 불면서 허기진 토끼들로 쫓박질 해 갔다. 그는 이를 계속해서 되풀이 했다. 그러나 그리 오래지 않아서 미쓰 씨만은 자기 뒷뜰의 일부가 말끔해 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드디어 침입자를 포착하고 말했다. 그는 곧 침입자의 어머니를 전화로 불렀다. 그의 어머니는 일종의 굴욕감을 느꼈다. 아들이 차마 그런 짓을 하다니!

어쨌든 아들은 엄마와 함께 자기 잘못을 사과하러 가야했고 참으로 그건 무서운 형벌이었다. 전번 식료품상 주인에게 사과했을 때도 그것이 어려운 것이었는데 하물며 교장에게랴? 너무 가혹한 형벌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과하면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

(16페이지 하단으로)



선교사 대회에 다녀와서

지방부장 제 2보좌 지 영 달

지난해 부터 해마다 가을이 오면 명승지를 찾아 여러날동안 열리는 선교사 대회가 금년에는 멀리 동해안의 관광지, 설악산에서 열렸다. 10월 12일부터 3박 4일에 걸쳐 설악산 관광호텔에서 가진 이번 대회에는 특별히 한국 지방부장단이 초청되었으므로 모처럼 선교사들의 세계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사전답사와 치밀한 계획 및 준비로 이루어진 이번 대회는 그만큼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보람찬 것이었다.

대회의 첫날은 관광활동으로 시작되었다. 아침 7시에 식사를 마친 전원은 간편한 복장으로 호텔을 나섰다. 등산 코스는 비교적 가까운 곳을 택하였다. 우뚝우뚝 솟아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있는 계곡 사이로 삼삼오오 짝을지어 올라갔다. 비선대에 올랐을때 그야말로 창조주의 능력과 신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선대에서 기념 사진을 찍은 후 금강굴로 향하였다.

옛날에서 산대사가 도통하

던 암자라고 하나 깎아 세운듯한 바위산중턱에있는 이 굴에 어떻게 출입했는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가파른 바위의 절벽 중턱에 굴이 있었다. 산 숲을 헤치며 거의 30분 올라갔다. 굴입구엔 철계단이 약 100여미터 가량 놓여 있어 난코스는 아니었으나 안개 때문에 시야가 가리워져 멀리까지 바라볼 수는 없었다. 먼저 등반한 선교사들이 함성을 올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마침내 금강굴을 정복한 물몬 가족들은 함성을 올렸으며 선교부장 내외가 당도하자 누가 먼저 시작하였는지 모르지만 “말일에 우릴 인도하심” 계속 불렀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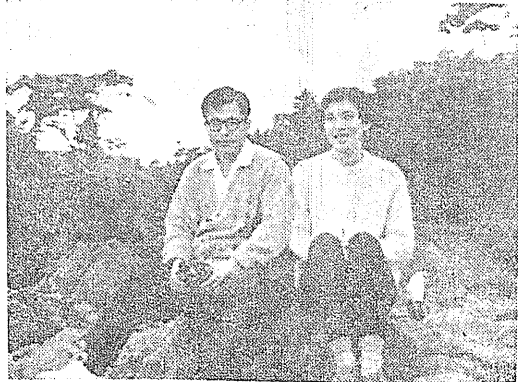


사진 : 낙산해안서의 필자부부

대자연속에서 창조주의 능력에 감탄하며 찬송가를 소리높여 불렀을 때 더욱 하늘나라에 가까이 온듯 참으로 감개무량하였다.

오후에는 각자 자유시간을 가졌고 관광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는 영화가 상연되었다. 우리는 카터장노의 안내를 받아 낙산사를 돌아보고 낙산해안으로 나아갔다. 망망한 바다 수평선 멀리 크고 작은 배들이 물위에 떠 있음이 망원경으로 보였다. 해녀들이 동해바다에서 잡아낸 해삼과 전복과 굴을 맛보았을 때 그 진미는 형언할 수 없었다.

저녁에는 선교사들의 한국어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한국인을 구도자로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모의 복음공부였다. 각기 정해진 열두 그룹에 속하여 정해진 구도자와의 복음공부를 끝낸 후 다시 한자리에 모여 평가회를 가졌다.

10월 14일 토요일, 이날은 매우 분주한 날이었다. 아침 9시부터 모임이 시작되었으며 첫번 모임은 “한국에 있어서의 물론 선교사”라는 주제하에 가진 배심제 토론이었다. 이날의 배심원은 지방부장단이 되었으며 선교부장 제 2보좌인 이호남 형제의 사회로 여러가지 요망사항이 선교사들에게 제시되었다. 원래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선교사들의 약점을 지적하고 이문제에 대한 질문을 선교사들로 부터 받음으로써

토론을 성립시키려는 모임이었다.

배심제 토론이 끝난다음 10시부터는 팔머 선교부장이 인도하신 복음에 관한 토론이 있었고 여기서는 “어째서 예수가 구세주로 되었느냐?” 하는 근본문제와 “예수가 속죄한 것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언제였느냐?”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왜 예수님은 한국이나 중국같은 나라에 나타나지 않으셨는가?” “침례와 속죄의 관계” 등등 많은 문제를 다루었다.

점심을 든 후 1시부터는 미리 정해진 계획대로 그룹별 토론이 있었다. 이 토론에서는 여섯 그룹으로 나뉘어져 각기 한가지 문제를 갖고 토론하였던바 이때 토의된 문제는 (1) 선교사와 지부의관계, (2) 고용문제, (3) 매일의 생활계획문제, (4) 한국어공부, (5) 전도방법, (6) 대인관계, 등등이었다. 그룹별 토론을 마친후에는 4시에 다시 모여 각 그룹에서 결의된 사항을 전원에게 알리는 보고회가 있었으며 각 그룹은 훌륭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각 그룹서기의 보고가 있을때마다 선교사들은 박수로서 환영과 동의와 새로운 각오의 뜻을 표해주었다.

저녁식사를 마친후 7시부터는 큰 비중을 갖고있는 총회가 열렸다. 여기서는 선교사들의 이동과 새로운 지역 계획에 관한 발표가 있었는데 선교부장 제 1보좌였던 카터장노가 대구지부로 떠나며 그대신 스노우장노가 선교부장 보좌가 되어 지방부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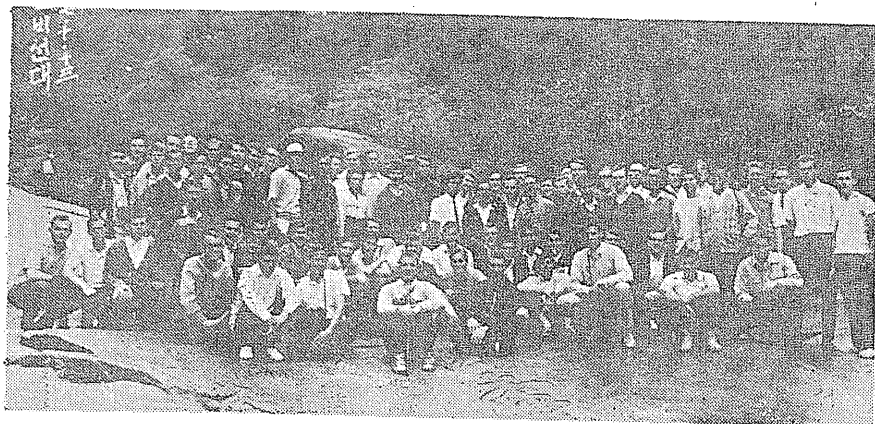


사진 : 선교사대회 참석자 전원의 비선대 앞 기념촬영

과 함께 일하게 되었음이 발표되었고, 새로운 지역으로 전주에 네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음이 발표되었다. 더우기 전주지역의 감리선교사로 떠날 칼슨 장노는 새지역에서의 전도를 위해 선교사 해임일자 몇달 연기하였음이 밝혀졌다. 선교사들의 이동이 발표된 후 힐장노 페리튼장노, 닐슨장노로부터 각각 인천과 대전과 영등포지역의 발전상을 짧게 보고 받았고, 전주로 떠나는 칼슨장노의 소감을 들었다. 자기가 지닌 신앙과 간증을 이렇듯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을 볼 때 진정 고마움을 느꼈다. 이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심이 분명하였다. 이날저녁 팔머자매와 차 중환 지방부장의 말씀은 선교사들을 고무하였고 성령에 인도된 선교부장님의 영감에 찬 말씀은 감동에 감동을 더해주었으며 이제까지 잠자던 영육을 불러 일으켜 새로운 활기를 부

어 주었다. 특히 이자리에서 팔머 부장님은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과 실패가 거듭될지라도 낙담치 말고 의지와 야망과 용기를 가지고 부름받은 일을 힘써 수행하며 일하고 일하고 일하라고 강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기도로 상의하며 그 뜻대로 행하고 여호와와의 권세를 무기로 자신을 무장시키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그날 저녁 그곳에는 주님의 영이 충만한 듯함을 느꼈었다. 모임이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은 서로 굳은 악수를 나누며 감사와 격려와 위로의 인사를 교환하면서 성도된 보람을 더욱 느꼈다.

10월 15일, 일요일. 아침 6시에 기상하여 돌아갈 여장을 챙겨 추력에 실어 놓고 이번대회의 마지막 모임이 되는 금식간증회에 임하였다. 맑게 개인 파란 하늘에 우뚝 솟은 영봉들, 산을 불태우듯 밝게 오색으로 수놓은 단풍..... 만추의 찬 바람이 감도는산

장의 창가엔 이른아침의 햇살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용한 동해에 태양이 솟아 오른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개회 찬송이 울려 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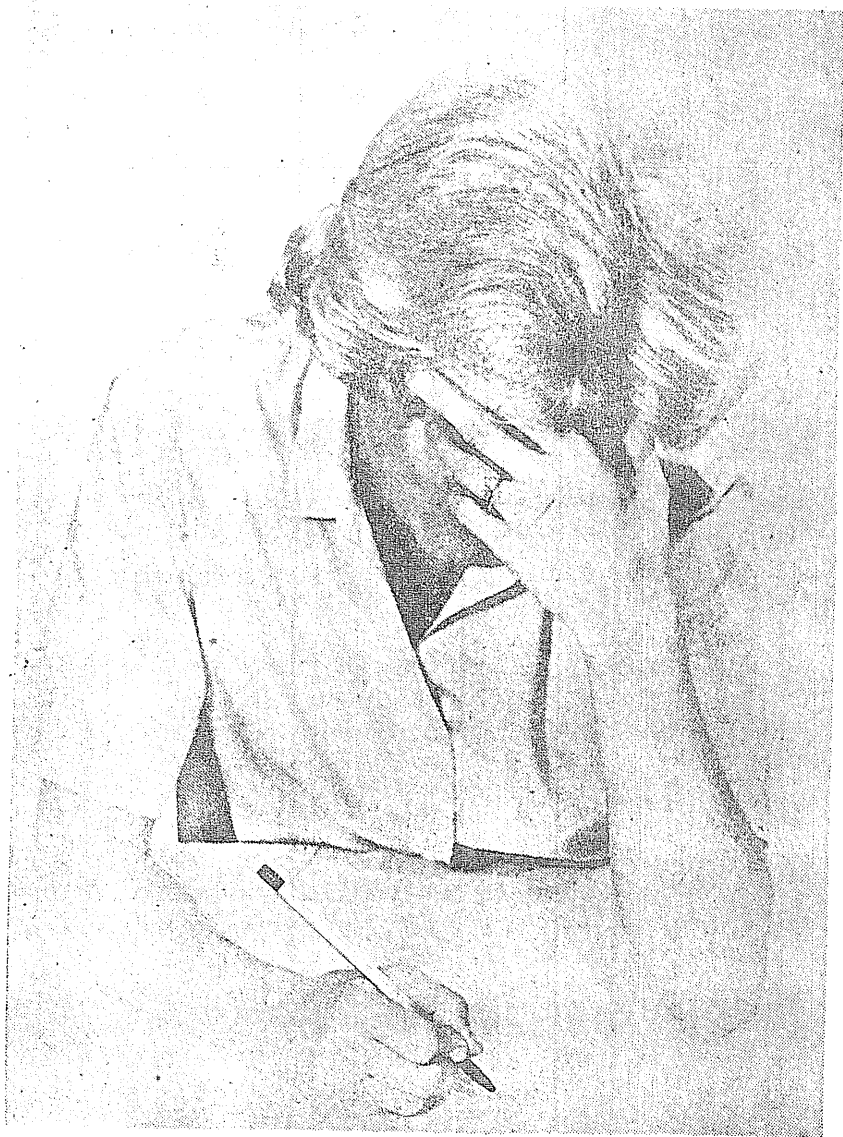
“오 사랑스러운 아침 밝게 비쳐주는 해, 별과 새들 노래하니 온 숲이 음악이었네, 그늘진 숲에서 요셉 하나님 찾던 그때 그늘진 숲에서 요셉 하나님 찾던 그때”

비록 영문판 찬송가로 노래했지만 감회는 깊기만 하였다. 이윽고 간증의 시간이 왔다. 앞을 다투어 간증하려는 선교사들 그것은 정녕 말일성도들이 모인 곳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광경이었으리라. 그것은 참된 교회에 속하였기 때문이요, 교회의 가르침이 실생활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이요, 선교사로서의 과업이 비록 험난한 것이긴 하지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었으리라. 진정 이러한 간증이 없었던들 그들은 선교사가 되지 않았을 것인즉 다투어 간증함은 당연지사였으리라. 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글썽이며, 때로는 역경을 헤치고 착실히 쌓아온 결실을 바라보

며, 때로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되찾은 기쁨에서 때로는 구도자를 찾아다니기에 지쳤으나 신앙을 잃지않고 바른길을 찾은 희열에서, 때로는 이웃과 동료로 생각하는 인간애와 우정에서 의로운 영들은 간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듣는 이의 가슴을 뒤흔들고 긴 여음을 남겨 주었다. 진실로 이들은 그 간증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고, 또 유일무이한 삶의 무기로 삼을 수 있었으리라.

산장의 추녀 끝에 매달린 풍경이가 바람에 흔들려 “뽕그렁”하고 간간이 울려왔다. 그러한 가운데 간증은 꼬리를 물고 11시까지 계속되었다. 방안에 설치된 난로의 불길이 훗훗 타올랐다. 심령마다 뜨거운 영의 불길도 훗훗 타올랐다. 분명히 주님께서서는 이 의로운 종들의 의로운 간증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더욱 풍성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저들을 통해 이땅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리라.

서울로 향한 귀로. 뺨스안. 창밖으로 다시 접하는 대자연의 아름다움. 절경. 창조주의 오묘하신 지혜. 능력. 신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른 사람은 알까요?

저는 비회원과 결혼하였습니다

필 자 익 명

다른 신앙을 가졌거나, “종교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활동적인 말일성도에게 있어서 생활은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이러한 과정의 활동이 가져다 주는 경험을 통하여 생활해 보지 않고는 결코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으며 비록 짐작할 수는 있다 하겠지만 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20년동안 이 더한 환경하에서 결혼생활을 해왔고 그동안에 저는 많은 감정을 느꼈으며 많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비회원과 데이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나, 혹은 개종의 희망을 갖고, 비회원과 결혼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에 당면해 있는 사람에게 깊은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막을 제치고 내 결혼 생활의 변모, 즉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일과 부족할 수 없는 반응과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혹은 눈으로 보고 또 그러한 결혼을 체험한 다른 사람의 침묵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을 들어내 보이고져 합니다.

저의 2년동안 저는 한 선교사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혼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상대방을 중대시하였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몇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저는 선교사인 저의 남자 친구를 존경하였고 여러면에서 그를 사랑하였지만 저는 어찌저 저의 사랑이 완전치 못함을 알았어요. 그이는 분명히 회의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약혼하게 되도록 격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미온적인 상태에 있는 동안에 결정적인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자 친구는 군에 입대하였고 그 동안 나는 큰 도시에서 한 비회원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이를 후레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유타대학교 2학년이었고 그이도 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심리학 교실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이의 지적이고 당당하며 야심이있고 진보적인 태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데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관심한 관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는 생각치 못했습니다. 저는 활동적인 회원이었고 나의 신앙에 어긋나는 결혼을 할 뜻은 갖지 않았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작고 하셨지만 교회에서 활동적이셨으며 그것은 저의 기억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존해 계셨고 언제나 교회의 보조조직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제가 어린 시절과 십대의 소녀였던 시절에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이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두 분이 다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 가정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비회원과 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셨고 다른 사람들도 저에게 충고하셨으나 저는 저대로 저의 혼기가 너무 늦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비회원과 심각한 관계를 갖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계속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후레드를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훌륭한 저의 가정과 교회에서의 교육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리화시켰습니다. 나는 그이가 저와 함께 교회에 참석했고 매우 흥미를 갖는 듯 보였기 때문에 몇 개월이내에 개종하리라고 믿을만큼 저는 순진했습니다. 왜냐 하

면 저는 복음의 원칙을 전적으로 믿었고 또 이러한 원칙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어서 실천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어떠한 지식을 가졌던 간에 곧 개종하게 되어서 성령이 그이에게 증거할 때 그 진리는 그이에게 확신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비회원과의 생활 경험에서 얻은 것은 실제로는 허무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구혼이란 매우 개인적이나 공통적인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실체물이 가장 적은 사랑이란 그들의 "사랑"이 가장 유일하며, 가장 진실하고, 아적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깊이가 있다는 것과, 의심없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고히 믿게 되는 젊은 남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젊은 마음의 동경은 얼마나 강하게 사무치는가!

저를 아끼는 친구들과 친척들은 그이가 복음을 전부 공부할 기회를 갖고 결정할 때까지 결혼을 연기하라고 저에게 간청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이를 사실상 반대하지 않았고 매우 그이를 좋아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가치관은 조만간 우리를 곤경으로 몰아갈 것이며 두 사람이 다 철회를 받으리라는 점을 계게 이해시키려고 애쓰셨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참 이었어요. 후레드는 ROTC에 있었으므로 그 부대는 졸업시까지 학교에 남게 되었으나 전쟁이 악화되자 그들은 서둘러서 실전의 훈련을 며칠간 더 하고 끝냈어요. 그 때부터 후레드는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우연한 기회에만 며칠에 한번씩 그이를 보았습니다. 그 때 결정해야 할 문제가 대두되었습니

다. 그이가 해외에서 귀국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느냐 혹은 결혼을 먼저 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조건부로 결혼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내세운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감독의 인도로 결혼한다.
2. 우리의 자녀는 말일성도 신앙으로 가르치며 나이가 차면 침례받고 회원이 되게 한다.
3. 나는 나의 교회에서의 부름에 따라 봉사하도록 자유를 갖는다.
4. 우리의 가정에서는 지혜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한다. 이러한 규정은 내 마음속에 있는 전부였으나 앞에 있는 두 가지는 그이가 신봉하던 신앙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요 그이의 교회에서 파문을 초래할 근원이 되었던만큼 후레드편으로는 하나의 회생이었어요. 나는 신진 결혼을 당분간 기다려야 하는 회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겨우 몇 주일만 함께 있었어요. 그이가 떠난 후에 나는 임신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4개월동안 학교에 다닌 후 집으로 가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우리의 아기가 탄생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호남아처럼 활발하셨습니다. 유쾌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어머니는 제가 자라나던 시절에 돌봐 주시던 것 이상으로 친구요, 고문이요, 동정자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작년 5파운드 짜리 여아를 조산하였을 때 병원에서 기다려 주신 분도 어머니였습니다.

후레드가 처음 우리의 아이를 보았을 때 아기는 거의 세살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세 아이가 있으며 끝으로 둘은 아들입니다.

교회활동

저는 후레드가 저의 교회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주어서 기뻐했습니다. 저는 여러해 동안에 많은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은 후레드가 집에 있는 시간에 시중을 들지 못하게도 되는 직분에 나를 불렀어요.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저는 저의 활동을 통하여 복음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를 길렀습니다.

여러번 후레드는 복음에 대한 흥미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이는 후에 돌아서긴 하였지만 세번이나 선교사와 공부를 하였습니다. 한 때 그이는 우리와 함께 반쯤 내키는 마음으로 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우리는 다정하게 같은 와드에서 지냈으며 우리의 친구들은 그이를 사랑하였고 그이를 위해 기도했으며 그들이 신전에 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이를 생각해 주었습니다. 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그이를 사랑하였고 우리와 함께 교회에 가도록 권유하였으며 그이가 응할 때는 무한한 기쁨을 보여 주었으나 그이가 거부하였을 때는 즐겁게 해 주려고 애썼으며 그이를 억압하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이를 억압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이룩하기 어려울거예요. 왜냐 하면 그이를 우리 교회에 인도하려는 아이들과 나의 열망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 일요일 아침마다 아이들과 함께 교회로 예배보러 갈 준비를 할 때, 당신의 침실을 떠날때까지 아직도 잠자고 있거나 겨우 일어나려 하고 있는 당신의 남편을 다시 한번 바라 볼 때, 아침에 커피 잔을 앞에 놓고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는 남편을 볼 때 남편이 교회로 떠나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을 무관심하게 보아 넘길 수 없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을 그대로 글로 표현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가장 고통한 감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친밀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신권을 가진 당신의 아들이 자명증 시계를 맞추어 놓고 일어나며 일요일마다 충실하게 혼자 신권회에 나갈 때 더욱 그러한 감정을 강하게 느낄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오는 것을 볼 때, 당신의 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당신은 마음속에 이처럼 산란한 느낌을 가지고 교회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으며 개회시의 광고나, 신전방문여행이나 장로들의 파티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신은 신권소유자가 없고 신전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가슴 아프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이 회중들의 얼굴을 스쳐서 당신 친구들의 얼굴을 보게 될 때, 그들은 광고된 행사에 참여하게 됨을 당신은 인식하게 되며, 당신의 한정된 상태에 반하여 그들의 평화감, 단일성, 그리고 가족 관계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을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상호부조회나 유년협회 공과에서 훌륭하게 가르쳐진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당신의 남편과 함께 나누기를 열망하였으나 남편 대답이 “얘기하든 말든 맘대로 하구요” 하거나, “그건 내가 생각해 보지도 않은 일인데, 상관없으니 지금이라도 말해 보구요” 한다면가 혹은 “인젠가는 당신이 믿는 그 미치광이 일때

문에 당신이 송두리째 빠져버릴거요!” 한다면, 그 때의 당신의 좌절감과 공허감을 표현할 말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병난 아이가 신권소유자를 불러 축복해 달라고 밤에 신앙으로 울부짖을 때,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그 옆에서 있으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축복해 줄 자격이 없을 때의 당신의 절망상태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가정과 자녀

금식일이나 특별한 금식이 필요한 경우 당신이 남편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곤란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이것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저것을 할 때 자녀들이 왕국의 원칙을 지키도록 당신은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 당신 남편의 소행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런지 당신은 생각해 본일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진실로 다루기 어렵고 미묘하게 얽힌 책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녀들에게 복음의 원칙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무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남편이 일요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야구시합이나 영화구경을 간다든가 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으면서 조금도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에게 있는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가 아이들 판단의 갈등을 야기시키며, 해결해야 될 문제가 계속적으로 여울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하고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과도 결혼하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과 차이가 날 때 당신이 믿고 있는 바를 그들이 성스럽게 이겨주리라고 믿는 것은 쓸모없는 일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지요. 저는 손님에 대한 경중한 배려를 하는 가정에서 자라났으므로 저는 기쁘고 안심하며 저의 시집식구들을 우리 집에 초대할 후 우리의 자녀중에 한 아이가 제게 속삭여 주기를, “할머니는 내가 물론 어머니한테 태어나서 불쌍히 여겨진다고 말씀하셔!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뭐가 잘못되었다는거야?” 하였읍니다.

이러한 방문이 있을 후에 저는 저의 딸의 손에 물론 서적을 쥐어준 배도자 일을 깨달았읍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계속됨에 따라 저는 저의 사랑스런 후대에 대한 교육이 수포로 돌아감을 느꼈어요. 후례드는 말하기를, 자기 부모의 소행은 부끄러운 일이었으나 그분들을 바르게 잡아드리려고 애쓰지도 않았다고 하였어요. 하늘 아버지의 도움으로 인내하여 상태의 손실을 되찾아야 함은 저의 과제가 되었읍니다.

싫긴했지만 저는 저의 시집 식구와의 화목한 가족 관계를 열망했고 또 필요했읍니다만, 그들은 우리 자녀들과 저의 적이었으며 복음에 대한 우리 자녀들의 간증을 훼방놓을 기회를 노리는 다른 진지에 있는 적이었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것은 또 하나의 책임 곧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부모를 사랑하되 간증을 제거하려하는 그분들의 시도에는 관계하지 말도록 가르치는 것을 요구했어요. 이

얼마나 역설적인 임무입니까!

가끔 저는 샤프트 레이크사에서 열리는 교회의 대회에 참석할 특권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신전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을 저녁에 기다린 일이 있습니다. 혼자서 있었을 때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선택을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실재감을 느꼈습니다. 제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가누기 힘든 후회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제가 신전가까이 있을 때 항상 내 마음 속에 가득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의 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집을 떠날 때 나의 딸은 “어머니, 어머니가 신전거리에 있을 때 이것을 읽으세요”라고 말하면서 쪽지를 내게 주었습니다. 저는 저의 지갑에서 그 쪽지를 꺼내어 다음과 같이 쓰인 것을 읽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저는 어머니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잠시동안 축복이 우리들에게서 떠나갈 때까지 우리들의 축복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께서 얼마나 훌륭한 영을 오랫동안 갖고 계신가를 제가 인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갓난 아기였을 때 저를 섬세하게 보살피 주신 일, 제가 자랄 때 사랑스러운 관심을 보여 주신 일은 언제나 더욱 어머니를 사랑하게 하였어요. 비록 어머니께서 제게 특별한 일을 해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제 생활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머니가 사랑의 환세를 초과하셨음을 알아요. 저는 제가 이

상생활을 갖기 전에 어머니의 딸이 되기로 성약한 것을 기쁘게 생각해요. 저는 저의 생애동안 저를 도와 주실 어머니가 필요하고 어머니의 정신과 인품이 필요해요.

“어머니는 제가 기분이 저하되었을 때 기쁘게 해 주셨고,

어둠속에 있을 때 불을 밝혀 주셨고, 저의 영혼으로 하여금 지상에서의 일들에 비케 하셨으며,

어머니는 하나님의 딸로서 저를 이 세상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계시던 일을 모두 말하는 것 보다는 쓰는 것이 더 쉽습니다.

“훌륭하고 고무적인 산책을 하시도록 하세요.

어머니의 사랑하는 딸

.....”

저의 마음은 사랑으로 부풀었으며, 감사와 새 희망과 힘이 제 주위에 몰려왔으며, 헌신해야 할 어머니요 우리 가정의 복음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기로 다시금 결심을 하였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알 림

성도의 벗 6월호에 광고 드린 바 있는 배 일문 시 현상 모집은 당선작이 없으므로 내년 2월말로 그 기간을 연기 합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성도의 벗 편집실

감사하는 백성아

작사자 : 헨리 알포드

작곡자 : 조지 제이 엘비



1958년 어느 여름 낮 오후 고 김
호직 장로님 댁을 방문했던 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추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
시는 것을 감사드리는 기도를 김장로
님의 가족과 함께 드릴 기회를 가졌
었다. 하루의 일과를 무사히 마치시
고 돌아 오신 김박사님께 김이 무럭
무럭 나는 옥수수를 가져 오시며 발
에서 처음으로 탄 것이라고 여쭙는
아주머니의 말씀에 김박사님께서
무릎을 꿇으시며 다 같이 기도하자
하시면서 추수하게 해 주시고 먹을 것
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는
것이였다.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
도하시는 그 때의 기도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명을 필자에게 주었다.

값으로 치자면 얼마 안되는 옥수수
일망정 이것을 먹을 수 있게 비와 햇
빛을 주시고 바람에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가
꾸느라고 피약 벌아래 땀흘리며 수고
한 농부에게 감사하는 김박사님의 간
절하고 겸손한 기도야 말로 가을을 맞
아 모든 수확을 거두고 일년의 노고
를 결산 짓는 이 때를 당하여 대부분

이 도시민인 우리 한국의 말일 성도
들은 18장 “감사하는 백성아”를 부르
면서 어린 아이처럼 조그만한 것일지
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직접
전달해 주신 분께 감사할 줄 아는 신
앙을 가져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
셨다.

그 중 24—30절까지는 밀과 가라
지의 비유를 드셨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
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를 덧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
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
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
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
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
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
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숫군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2 절의 가사는 위의 성구를 축소하여 곡에 맞춘 것이다. 이 성구의 뜻을 잘 새겨서 2절을 부르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지휘자에게 :

속도는 일분에 104이니 상당히 빠른 노래이다. 느리게 부르면 아주 듣기 싫게 되나 그렇다고 지나치게 빠르게 되면 경망하게 되기 쉬우니 속도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104의 속도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기분을 지니게 된다. 찬송하면서 감정 표시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그 찬송을 정성드러 부른다는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2 절 밖에 되지 않으므로 중간에 휴식을 취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둘째 단 셋째 마디 “려”음에 반음 올림표가 붙어 있다. 정확하게 반음을 올려 부를 수 있게 악기로 여러번 들고 난 다음 노래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찬송을 부를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입을 크게 열지 않는다. 지휘자는 권장하여 여러 회원이 크게 입을 열어 찬송하도록 해야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 오는데 입의 크기만

큼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면 모든 사람은 저절로 크게 벌려서 힘껏 찬송하지 않을까?

또 입뿐만 아니라 찬송가를 드는 태도도 시정해 줘야 하겠다. 허리를 의자에 바짝 부쳐서 고개를 쳐들고 찬송가를 높이 들고 부르던 높은 음일지라도 곱게 소리 낼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발성은 올바른 몸가짐에서”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반주자에게 :

멜로디 뿐만 아니라 엘토나 테너 베스파트의 음정이 매우 활발하다. 특히 임시 기호에 주의를 해야 하겠고 왼손의 움직임이 심하니까 연습을 충분히 해 두어야 깨끗한 화음으로 반주할 수 있다.

또 어느 파트에 있어서는 멜로디의 박자와 같지 않는 부분이 가끔 있어서 변화를 다양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둘째단 둘째 마디부터 이 수법이 사용되어 끝 마디까지 나타난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악보대로 완전히 칠 수 없게 될 것이다.

멜로디만 반박자 더 길고 다른 세 파트가 한 박자씩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둘째 단 둘째 마디 넷째 단 첫째 둘째 마디) 테너 파트만 반박자 길게 된 곳도 있고(둘째, 셋째, 넷째의 끝마디 및 넷째 단 첫 마디 넷째음 등) 재미있는 변화를 집어 넣은 작곡이다. (정 대판 記)



이야기로 엮은 구약성서

2. 아담과 이브

김 양 자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아담이 잠을 깨어 눈을 떠 보니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인지 몰라요. 앞뜰 뒷뜰엔 아름답고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있었고 푸른 공기를 헤치며 나는 예쁜 새들은 고운 소리로 지저배배, 쪼르릉 쪼르릉 하여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즐겁고 행복한 곳(낙원)이었어요.

그러나 이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즐겁게 날으는 새들과 뛰는 짐승들은 모두가 사이좋은 동무들이었는데 사람된 아담만은 얼마나 심심하고 쓸쓸할까?」 아담이 깊이 잠든 틈에 아담의 옆구리를 헤치고 깎쪽같이 갈비 뼈 하나를 뽑아서 그것으로 여자 한분을 만들어 아담에게 친구를 삼아주셨어요. 아담은 좋은 친구를 얻어 한없이 기뻐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을 「이브」라고 지은 후 즐겁게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있는 모든 열매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따 먹어도 좋으나 맨 가운데 있는 착한 일과 나쁜 일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아담과 이브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마음이 알미운 뱀 한 마리가 그 열 숲속에 숨어 이것을 듣고 있었어요. 물론 이 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마음이 아주 나쁘고 흉하고 잘난 체하는 악마의 꾀임을 받아 나쁜 꾀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아름다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몹씨 부러워 하였던 것이예요.

그러던 어떤 날 하루는 이브가 혼자서 소풍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뱀이 일부러 모른척하며 다음과 같이 물었어요. 「이브씨 당신께서는 저기 있는 착한 일과 나쁜 일을 아는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예요?」 이 때 이브는 대답하기를 「그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만일에 먹었다가는 죽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만에! 그렐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먹으면 좋고 나쁜 일을 잘 알게 되므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예요.」 하고 뱀은 잘 꾀었어요.

정말 나무에 달린 열매는 쳐다보기만 하여도 먹음직하여 침이 넘어가는 열매가 불만하게 주렁주렁 열려져 있었어요. 또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훌륭해 진다는 말이 생각나 참을래야 참을 수 없어 마침내 낮은 가지 하나를 휘여 잡고 하나를 툇 따서 먹어 보았어요. 참으로 맛이 있었어요. 이브는 혼자서 먹기가 아까워 또 하나 툇 따서 집으로 가져다가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그 열매를 먹은 후부터는 눈이 밝아졌는지 자기들이 맡가벗은 것을 알게 되어 너무나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몸에

다 들렀어요.

조금 후에 해가 서산쪽으로 질러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께서 동산 안으로 천천히 나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탓이에요. 그래서 얼른 나무숲으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기쁘게 맞아주던 아담과 이브가 오늘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서 큰 목소리로 「아담아 어디 있느냐」하고 불러 보셨어요. 할 수 없이 아담은 숲속으로부터 나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벌거벗었으므로 너무나 부끄러워 숲속으로 숨어버렸어요.」 「무엇이! 누가 너희들이 벌거벗었다고 말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 먹었지?」 「네, 이브가 가져다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브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랬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브는 「뱀이 꾀이기 때문에 그랬읍니다」 하며 아담과 이브는 서로 핑계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만 화가 나서서 뱀을 향하여 꾸짖었어요. 「너는 이제부터 배로 다니며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이 때는 뱀이 사람처럼 걸어 다녔을 것 같아요) 또 이브를 향해서 「너는 앞으로 아기를 낳는 아프고 슬픈 수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섬기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아담을 향하여 「너도 나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으니 땅을 파고 밭을 '가는 수고가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며 또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너 하는 일에 방해를 줄 것이다. 그리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처음에 너희들을 흙으로 만들었으므로 죽으면 흙에 묻힐 것이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담과 이브에게 엄하게 꾸중을 하시고 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 옷 한벌씩을 지어 줄거운 에덴 동산에서 쫓아 내시고 말았어요.

이리하여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과 이브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만 살아 갈 수 있는 슬픈 세상에 빠지게 된 것이예요.

편집후기

○ 등록을 받기위해서 9,10월호를 합병호로 내었던 성도의 벗은 매월 1일을 발행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잡지로써 키워주신 여러분의 편달이 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 모조지로 인쇄되어오던 성도의 벗(5.6.7월호)은 인쇄를 선명히 하기 위해서 "70 중질"이라는 이름의 종이에 8, 9, 10 월호를 인쇄해 보았고 이제 다시 "60 유광택 중질"이란 이름의 종이에 인쇄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 성도의 벗에서는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류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원고(글, 그림)를 기다리겠습니다. (M)

일 반 용

물문경.....150원
 물문경(가죽표지).....1,200원
 물문이란.....100원
 효과적인 가르침을 위한 제언.....50원
 찬송가.....50원

주 일 학 교 용

그리스도의 생애.....100원
 기이한 업적(상권).....100원
 기이한 업적(하권).....100원
 말일성도란.....100원
 복음의 실천.....100원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의 이상.....100원
 생활에서 본 회복된 교회의 원리.....150원
 성전중의 지도자.....100원
 주님의 뱃세이지.....100원
 주님의 뱃세이지(교사 보조 교재).....100원
 회복된 교회의 역사.....150원
 이야기로 엮은 구약 성서.....150원

상 향 회 용

강력한 지도력을 통한 인격 강화.....20원
 봉사 이삭줍기반 공과.....100원
 상향회 역원 지도서.....50원
 상향회 선교부 지도서.....50원
 선택의 밤(봉이반 공과).....50원
 장미반 공과.....150원
 지도 원리.....50원

신 권 회 용

아론 신권회 지침서.....20원
 인간과 하나님.....100원
 집사 고문 지도서.....150원
 회복된 성교회.....100원

유년 주일학교

우리의 종교생활(상).....100원
 우리의 종교생활(하).....100원
 주안에서 자라남.....150원
 복음안에서 자라는 어린이.....150원
 어린이 찬송가.....100원

圖書案内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敎部

(住 所 錄)

宣 敎 本 部	清 雲 支 部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⑬ 3 9 9 5
東 部 支 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34의 19 ⑭ 1 0 0 5	
三 清 支 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번지 ⑮ 3 5 9 6	
西 部 支 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8의 1 ⑯ 1 2 0 8	
城 北 支 部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의 13 ⑰ 0 7 4 4	
新 村 地 域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7의 13 ⑱ 4 2 7 9	
永 登 浦 地 域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량진동 54의 15	
仁 川 地 域	인천시 인현동 20번지 대화제과 2층 ① 9 8 5 2	
大 田 地 域	대전시 대흥동 440의 1 ② 6 2 7 3	
大 邱 中 央 支 部	대구시 삼덕동 2가 24번지 ③ 6 6 5 9	
釜 山 支 部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95번지 ④ 7 0 7 1	
東 區 支 部	부산시 동구 수정동 658의 10	
光 州 地 部	광주시 금동 165번지 이발소 2층 ⑤ 2 6 9 2	
全 州 地 域	전주시 남노송동 553의 4	

성도의 벗

1967年 11月 1日

通卷 第 2 7 號

發 行 人 裴 一 文

編 輯 人 洪 武 光

發 行 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 宣敎本部

印 刷 所 育 書 齋 印 刷 所